소년단
500만
1961. 12

약동적으로
쾌활하게

꼬마 기술자의 노래
(중창곡)

리원범 시
김준석 곡

선 반기 핸- 들을 들- 어- 잡고서
솜씨 있게 쇠- 밥을 날려 갈때 면
선생님 고개 끄덕 칭- 찬- 하시죠
4급 공의 기- 능도 문- 제가 없대요
최우등의 성- 적- 을 실습에서익히 여
우- 리는 공산 주의 건설자로 자라 죠

(2) 일'손도 흥겨웁게 노래부르며
반짝이는 나사못 깎아 줄 때면
검사공 싱긋 웃고 어깨를 치죠
이번에도 만든·제품 합격이래요
(후렴)

《소년단》 12호 내용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윤 복 진　　그림 최 순천

아버님의 크신 뜻을 이어

원수님이 압록강을 건너서 무송에 이르렀을 때 아버님의 병환은 생각한 것보다는 가벼웠습니다.

어머님의 지극한 정성과 몇 달 동안 정양한 보람이 있어 아직 몸은 쾌치 않았으나 그런 대로 자리에서 일어 나 앉게 되였습니다.

완쾌할 날은 멀었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일어 나 계시는 아버님을 뵈올 때 무척 반갑고 기뻤습니다.

천 리 먼 길을 오는 도중에 중병에 계시는 아버님을 생각하시고

《혹시나 아버님이 잘못 되시면 어쩌나?》 무척 가슴을 태우며 오셨던 것입니다.

어머님도 동생들도 무사했습니다.

본시 그리 건강하지 못한 어머님께서는 몇 달이나 밤을 새우며 아버님의 병 시중을 하시느라고 얼굴은 무척 수척해졌습니다.

원수님이 돌아 오심으로 해서 집안엔 웃음 빛이 돌고 아버님의 병환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그만한 건강이라도 부지하게 된 것도 굽힐 줄 모르시는 굳센 의지 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님과 조국에 대한 불 같은 사랑 때문이였습니다.

아버님은 자나 깨나 살아 생전에 원쑤 왜놈들을 쳐부시고 빼앗긴 우리 조국을 찾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계셨습니다.

원수님은 얼마 후에 무송 우급 소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원수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한편 뜻이 맞는 중학생들과 친하게 사귀였습니다.

원수님은 동무들과 씩씩한 군사 놀이를 잘 하셨습니다.

군사 놀이는 총칼만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군대와 별로 다름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넓은 벌판에서나 푸른 숲이 우거진 산림 속에서 본격적인 군사 놀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군사 놀이만 잘 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군사놀이가 끝나면 넓은 들에서나 푸른 숲 속에 모여 앉아서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흥겹게 놀았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아동극을 상연하며 집단적으로 즐겁게 놀며 아름다운 정서를 즐기였습니다.

원수님은 집에 돌아 오시면 조용히 공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이야기와 재미나는 놀이로써 집안은 언제나 밝은 웃음 꽃이 활짝 피였습니다.

원수님은 노래를 잘 부르셨고 이야기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유희도 썩 잘 꾸몄습니다.

아버님의 병환은 아직도 쾌치 않았으나 아버님과 어머님 곁에서 마음껏 배우고 즐겁게 놀던 이 시절은 참으로 행복한 때였습니다.

먼 북쪽 땅의 봄은 늦게야 어슬렁어슬렁 찾아 왔습니다.

그리운 조국, 머나 먼 고향에서는 양력 4월 중순이 지나면 붉은 진달래가 함빡 피는데 중국 동북 땅 무송에서는 음력 4월이 다 가는 때에야 진달래가 피고 뻐꾹새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송 땅에도 봄은 찾아 왔습니다.

해'볕은 나날이 따스해지며 노란 금잔디를 헤치고 파란 새 싹들은 뾰죽뾰죽 돋아 나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대지는 숨을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눈 속에 묻혔던 진달래도 불그레 피여나며 먼 남쪽 나라에서 뻐꾹새도 찾아 와 기다리던 새 봄을 노래하려 고운 목청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양춘 가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절에 아버님의 병환은 점점 위중해 갔습니다.

마침내 약도 어머님의 정성도 원수님의 뜨거운 효성도 보람 없이 아버님께서는 영원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꿈 속에서도 그리시던 자유의 새 조국도 고향의 화창한 봄도 못 보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슬픈 일이였습니다. 아버님은 가슴에 품었던 크신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눈을 감게 되니 원통한 생각이 북바쳐 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원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아버님이 이루지 못한 뜻을 반드시 성취하라 하시고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조국에 가고 싶구나! 조선이 독립되는 날 나를 대동강'가에 묻어 달라!》

원수님은 아버님의 이 뜻을 이어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 더욱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원수님은 많은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하신 끝에 원쑤를 더 잘 쳐부시고 자유로운 새 조국을 세우는데 훌륭한 새 무기를 찾아 내셨습니다.

그 훌륭한 새 무기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이였습니다. 레닌 선생이 열어 놓으신 10월의 길이였습니다.

원수님은 붉은 10월의 새 길을 충실히 따라 나갔습니다.

중학 시절에 공청에 가입하셨고 열성적으로 공청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리시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길림 감옥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원수님은 감옥 안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싸우셨고 붉은 사상을 단련시켰습니다.

혼자 남으신 어머님도 원수님의 붉은 사상을 받들어 나가셨고 원수님의 지하 공청 사업을 힘껏 도와 나섰습니다.

이 때의 어머님은 무척 곤난을 당했습니다.

반동놈들과 경찰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 생활은 나날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모든 난관을 꾹 참으시고 견디여 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원수님의 혁명 사업을 도와 부녀회 사업에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눈보라 사나운 어느 겨울 날 밤이였습니다.

원수님은 발톱까지 무장한 왜놈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무장 대오를 조직하시느라고 바쁘시던 어느 날, 어머님이 병환으로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머님을 찾아 오셨습니다.

이렇게 찾아 오신 원수님은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위하여 가지고 오신 쌀을 두고 떠나시려 했습니다.

어머님은 잠간 기다리라 하시며 부엌에 나가셨다 인차 들어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다.
그러나 이만한 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너에게는 더 큰 일이 있다.
네 손을 잡고 무송에서랑 (부녀회 주임으로 활동하시던 시기) 험한 령을 넘어 다닐 때 오늘 이런 위안을 받자고 그랬겠느냐?

아버지의 유훈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 사람이 그 얼마나 많으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네 갈 길이나 속히 가거라!》

참으로 세상 일을 누가 미리 다 알겠습니까?

이 짧은 상봉이 마지막 상봉이 될 줄이

야!…

어머님의 이 말씀은 아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으로 되였습니다.

그 날 밤 눈보라는 몹시 사나왔습니다. 높은 령을 넘고 넘어도 원수님은 추운 줄 몰랐습니다.

원수님은

《어머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아무리 추워도 추운 줄을 모르겠구나!》 하고 함께 걷는 동지들을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밤은 령하 30 도가 넘는 추위였으나 발도 시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두 발이 훈훈하여 원수님은 신었던 신발을 벗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모를 일이였습니다.

신'바닥에는 긴 머리 털을 정성껏 깔아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이게 웬 일일가?》

《누가 이렇게 소중한 머리 털을 깔아 놓았을가?》

원수님 머리에는 번개처럼 한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떠나시기 직전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잠간 부엌에 나가셨다 들어 오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원수님은 미처 말을 맺지 못하셨습니다.

원수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루루 흘러 내렸습니다.

아마도 원수님이 젊으신 시절에 흘리신 눈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듯 생각됩니다.

어머님은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언제나 원수님을 생각하셨고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 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우시려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를 친히 잘라 바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어머님이였습니다.

그 후 원수님은 어머님에 대하여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중국 땅에 건너 오신 후부터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재봉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살림 살이를 꾸려 나가시려고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이 단단하고 큰 분이였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척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병환에 계실 때 좁쌀 죽

물도 못 쒀 드렸습니다.

나는 틈만 있으면 개천에 나가서 낚시질을 하여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끓여서 어머님께 권하면 어머님은 그것을 조금 잡수시고는 수저를 놓으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배 고프겠니? 어서 먹어라.》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군 하셨습니다.…

이렇듯 훌륭하신 어머님은 새로이 꽃 피는 고향도, 자유로운 새 조국도 못 보시고 먼 남의 나라 낯 선 땅에서 원통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렇듯 빼앗긴 내 나라와 내 고향을 다시 찾아 꽃 피우시려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까지 바쳐 싸와 오신 훌륭하신 부모님들은 오늘 만경대 푸른 소나무 우거진 곳에 조용히 누워 잠드신 채 계십니다.

철 따라 기름진 오곡이 넘치는 사회주의 협동의 벌을 바라보시며 꽃 피는 새 락원을 노래하는 푸른 대동강 물'소리를 조용히 들으시며 고향 땅 만경대 한 기슭에 누워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원수님!

원수님은 그 후 부모님의 유훈을 지켜 빛나게 싸워 오셨습니다.

눈보라 사나운 만주 벌판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왜놈 군대를 쳐부시고 우리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 왔습니다.

오늘은 피여 나는 꽃봉오리들이 배움의 넓은 길에서 자랑 많은 붉은 넥타이를 휘날리며 마음껏 배우며 즐겁게 뛰놀며 화려한 공산주의 앞 날을 바라보며 새 희망의 큰 나래를 치는 것도 모두가 원수님이 피로써 여신 혁명의 붉은 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꽃봉오리들은 우리 선조들이 꿈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그러한 행복한 락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수천 년 동안 땀을 흘리며 때로는 붉은 피를 흘리며 행복한 새 세상을 꿈 꾸었으나 그 소원은 이루워지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원수님!》 하고 그 몇 번을 마음 속으로 인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어찌 나 뿐만이겠습니까!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과 3천만 인민이 똑 같이 뜨거운 심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비단 우리 조선 사람 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자유로운 새 조국에서 행복한 새 생활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와 똑 같이 뜨거운 심정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붓이 놓여지지 않습니다.

어데인지 모르게 귀중한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빠뜨려 버린듯 하고 또 빛나게 쓰지 못한듯 합니다.

만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훌륭한 이야기가 그 누구의 가슴 속에 아직도 묻혀 있는 것도 있을 것이며 또 발이 짧고 그리 밝지 못한 내 눈과 귀로하여 응당 찾아 낼 수 있는 것도 다 찾아내지 못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앞으로 기회를 보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빠뜨려 버린 귀중한 이야기를 보충할 것을 약속하면서 미진한 대로 붓을 놓으며 내가 쓴 이야기는 원수님의 삼촌 어머님께서 들려 주신 이야기 가운데서도 극히 적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만을 잊지 마시고 읽어 주실 것을 바라며 또 부탁합니다.

재미있게 학습하며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자!

과학원 연료 연구실장
로력 영웅 한 홍 식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장차 공산주의 조국을 걸머지고 나아갈 우리의 청소년들 앞에 지식있고 현대적 기술을 가진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으로 준비하여야 할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높은 과학 지식과 문화를 요구합니다.

바로 그 공산주의 사회는 먼 앞날의 일이 아니라 눈 앞의 일이며 동무들은 직접 그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또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하고 있는 7 개년 계획은 바로 이 공산주의 문어구에 더 빨리 들어 서기 위한 위대한 기술 혁명의 계획이며 문화 혁명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완수하면 그만큼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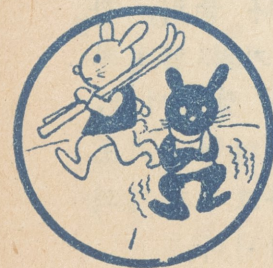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과학 지식과 기술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려서부터 기초 지식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고층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데 그 기초를 튼튼히 닦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공부를 하는 데도 기초를 튼튼히 닦아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적 발명도 털어 놓고 보면 동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학이나 물리, 화학, 생물 등 과목들의 기본 법칙과 공리나 정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이런 기초 과목을 철저히 리해하고 자기의 것으로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 과목들을 완전히 리해하게 되면 앞으로 동무들이 전문 부문, 례를 들면 대학에서 화학과를 졸업하고 화학 공장에서 일할 때도 그 무엇이건 막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화학 공장이라 해서 화학에 대한 것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학 공장에서도 전기, 기계, 류체 력학 등 기타 지식들이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어머니의 배'속에서 날 때는 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자라나는 과정에서 배우고 또 배워 지식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즉 보고 듣고 리해하는 과정에서 높은 지식과 경험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규률 있게 학습하는 습관을 잘 부치는 그것입니다. 장난을 하는데 습관을 부치면 장난'군이 되고 공부를 하는데 습관을 부치면 최우등생으로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과표를 짜 가지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동무들은 평소에는 공부를 안하다가 시험 때에 가서야 밤을 새우는 동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학습한 것은 산 지식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루도 빠짐없이 규률 있게 배워 나가는 데서만 지식은 늘어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읽어 모를 것이면 두 번 읽고, 실험 실습에서도 실패하면 또 해 보고 완전히 자기의 지식이 될 때까지 알아내고야 마는 인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과학 연구 사업도 그러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동무들은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 천대 받던 우리 나라 무연탄이 오늘에 와서 검은 금으로 되였다는 원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연탄을 가스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값눅은 비료와 화학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업과 농사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무연탄 가스화 연구의 성공도 꾸준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오직 수백 번의 실험으로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과학에는 신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였습니다.

열쇠를 열기까지가 힘이 들지 알고 보니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였습니다.

동무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알키메데스의 원리는 알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물이 넘어나는 것을 보고 발견한 원리이며, 뉴-톤의 락하의 법칙도 사과 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발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글과 실천이 합쳐진 데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배우든지 실지 실험하고 손으로 익혀 보고 하여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지 써 먹을 수 있도록 산 지식을 배울 대신에 머리에서 뜬금으로 외우기만 한 지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며,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이 원리를 기초로 하여 얼마나 많은 위대한 과학적 발명들을 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물의 현상을 정확히 잘 관찰하고 항상 그것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길을 걸어도 무심히 걷지 말고 우리 나라의 금수 강산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야 하며 거기서 위대한 예술도 나오고 그 맑은 물과 공기에서 전기와 비료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길을 걷다가도 좀 이상한 돌멩이 하나를 보아도 거저 무심히 지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이 무슨 돌멩이며 그 속에는 어떤 유효한 성분은 없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곧 주어 가지고 학교 실험실에 와서 선생님과 같이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습에 대한 성실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과거 36년 간이나 나라 없는 인민으로 배우지 못하고 갖은 천대를 받아 오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떳떳한 사회주의 조국에서 누구나 마음껏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15개 성상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왜놈들과 피어린 투쟁을 하여 우리 조국을 찾아 주시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혁명 투사들이 싸워 온 길을 돌이켜 볼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힘든 일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무들의 학습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당과 국가와 수령을 위한 것이며 전체 조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모두가 최우등이 됨으로써 이 은혜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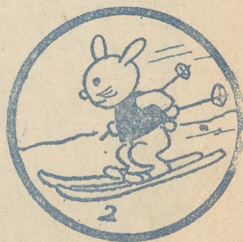
청소년 시절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간을 아끼고 또 아껴 가면서 규률 있게 학습하고 쓸모 있는 지식을 배워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랍시다.

가장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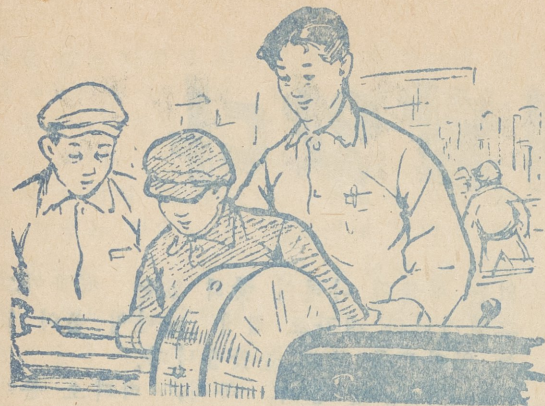
류 연옥

자라서 무엇을 할가
우리들은 저마다 생각하네

기사
학자, 정치가,
원예사, 비행사, 체육가,
혹은 예술가…
그 무엇이나
그 어떤 일이나
우리들은 할 수 있네.

농산 기사
그가 하는 일
얼마나 훌륭한가
넓어진 벌에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 물'결 넘치게 하는 일
동산마다 과일나무 우거져
철따라 갖은 열매 주렁지게 하는 일
그 얼마나 보람 있는가.

기술자, 화학 박사
그가 하는 일
얼마나 보람찬가
돌에서 비단실 뽑아 내는 일
물에서 공기에서 별에별 것 만들어 내는 일,
그 얼마나 신기로운가.

절로 도는 새 기계 만드는 발명가
그가 하는 일 정말로 훌륭하지
장님의 두 눈 번쩍 띄워
사회주의 꽃 세상 보여 주고
멎었던 심장 다시 뛰게 하는 의사
그가 하는 일 또한 놀랍지 않은가.

비행사, 우주 비행사
그 얼마나 좋은가
달 나라로 씽씽 별 나라로 씽씽
그 어디나 날아 갈 수 있으니,
달 나라 옥토끼도 안아 보고
꿈 같은 별 세상에 살아도 보고
그 얼마나 희한스러운가.

가수
또 얼마나 좋은가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 부르기
산을 번쩍 들어 옮기고
밤사이 넝큼넝큼 궁전도 세우는
천리마 기수들을 노래하기
아름다운 우리 나라 노래하기
얼마나 어엿하고 자랑스러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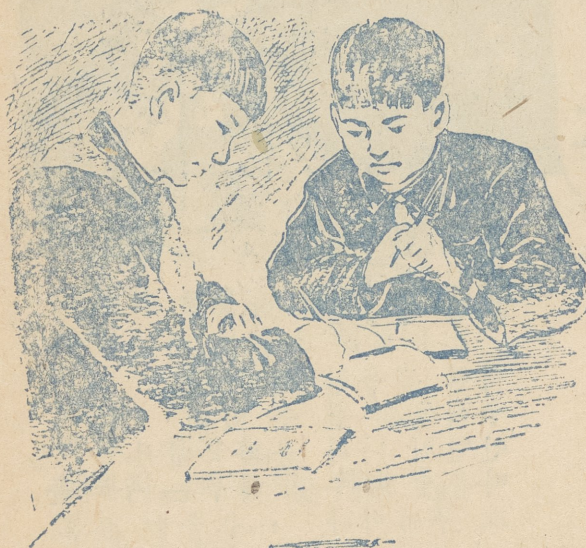
우리 나라 기사
학자, 정치가,
원예사 비행사, 체육가,
혹은 예술가…
그 분들은 훌륭한 분들
공산주의 새 세상 꾸리는 분들.

온 세상 땅 꽃세상 만들고자
온갖 사랑과 슬기로움 바쳐 일하는 분
그 분들은 천리마 기수들

그 분들 속엔
공훈 탄부
인민 배우
로력 영웅들…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들은 될 수 있네
인민의 나라 공화국에서
마음껏 재주껏 배우는 우리들
그 무엇이나
그 어떤 일이나
모두 할 수 있네 누구나 할 수 있네

다만 명심하자
그런 모든 일 하기 위하여
그런 어엿한 사람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김 일성 원수님 가르침 대로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나는 깨달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최우등을 하는 애들을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그 중에도 림 기환 동무를 제일 부러워했습니다. 이 동무는 인민반 때부터 오늘까지 최우등을 넘겨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3점만 겨우 받아 온 내가 어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잘하여 최우등생이 되고 싶은 마음은 내게도 가득하니까요.

얼마 전에야 나는 기환이가 어떻게 공부하여 최우등을 하는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제 4차 당 대회 문헌을 학습하면서 분단에서는 나도 금년 중으로 우등, 최우등생이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환이더러 돕도록 했습니다.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것은 분단의 모든 동무들이 기환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분단의 김 홍기 동무만 해도 기환이의 도움으로 요즈음 우등생이 됐지요.

기환이네 집에 공부하려 간 첫날 나는 한참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재미있는 책들이 나란이 꽂혀 있는 책꽂이도 그렇거니와 시간표 곁에 나란이 붙어 있는 일과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복습, 집'일 돕기, 독서, 라디오 듣기 등으로 조금도 빈틈 없이 째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기환이의 일과표를 본 받아 함께 공부했습니다.

내게 좀 싫증이 나는 기색이 보이면 마당에 나가 한바퀴 돌거나 목봉대에 매달리고 들어오군 했습니다.

그는 집에다 이렇게 목봉대까지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다가 쉬는 짬이면 늘 나가 몸도 튼튼히 다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피카를 틀어 놓고 보도, 노래 같은 것도 듣군하는 게 아닙니까. 보도를 들을 땐 시사 노트를 꺼내서 중요한 것은 적어 넣기까지 하겠지요. 이러니 졸음도 싫증도 언제 달아났는지 몰랐습니다. 대수 공부가 제일 뒤떨어진 나는 이 과목에 힘을 넣어 배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곱게 겉표지를 해 씌운 기환의 대수 교과서를 본 나는 또 한 번 눈이 둥구래 졌습니다.

《책은 나의 가장 친근한 동무이다. 친근한 벗 책을 사랑하자!》는 이런 글을 써 놓은 게 아닙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않고 그저 마음 속으로 읽어 봤지만 대뜸 그가 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공부에 힘쓰는 가를 알았습니다.

기환이는 련습장을 꺼내서 한 문제씩 설명하면서 척척 풀어 나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기환이는 한참 머리를 기웃거리며 생각해 보더니 웃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 보는 것이였습니다. 《네게도 있지?》 하면서 보이는 것은 수학 《공식장》 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겐 이런 수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하고 기환이가 빙신 웃으며 머리를 긁는 바람에 찬찬히 수첩을 들여다 보니 《+》를 《—》로 하고 계산했겠지요.

후에 안 일이지만 이런 수첩이 기환이에겐 3 개나 있었습니다. 두 개는 한문과 로어 단어장이였습니다. 학교에 가고 올 때 외우는 것입니다. 기환이네 집에서 학교까지는 낮으막한 봉화산을 넘어 20분이 잘 걸립니다. 그러니 학교'길에서만 해도 올적갈적 기환이는 40분 동안 공부하는 셈이 되지요. 기환이는 이렇게 공부하여 그날 배운 것은 그날로 꼭꼭 다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과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기는 일이 없답니다.

나는 차츰 공부에 흥미를 부치고 매일 어김없이 기환이를 찾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어 시간이였습니다. 《숙제를 다 해 왔습니까?》 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환이의 얼굴만 살피며 움추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 날 분단에서는 대성산 동물원 구경을 갔다 늦게야 돌아 왔습니다.

그래 기환이네 집에 공부하려 못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숙제를 하지 못한 건 뻔하지요. 대수 숙제를 하다가 그만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도 다 못 해 왔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이겠습니까! 기환이가 손을 들고 척 일어 서는 것이 아닙니까.

기환이는 로어로 소리 높이 읽고 번역까지 막힘 없이 하였습니다.

기환이는 어느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대수, 로어, 한문 숙제까지 다 해 오질 않았겠습니까.

방과 후 총화 시간에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오늘은 왜 숙제를 못 해 온 학생이 많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동무들은 거의 동물원에서 늦어 와서 못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환이는 어떻게 다 해 왔을가? 동무들은 모두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기환이는 어제 동물원에서 한참 뻐스를 기다리는 사이와 타고 오면서 로어 단어를 외운 것이였습니다. 기환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기환이의 꾸준하고 규률있는 학습은 분단 동무들의 모범이 되였습니다.

기환이처럼 빈틈 없는 일과표를 짜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짬짬이 꼭꼭 그대로 공부하면 누구나 다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나는 지금 그 처럼 최우등생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평양시 보통강 구역
봉화 중학교
초급반 2 학년 4반
한 창 호

그는 첫 아동단원이였다

글 박용호
그림 최순천

(81) 강'가에 이르렀다. 이들은 재빨리 나무'대기로 수심을 재고 얕은 곳을 알아 내여 그 곳으로 유격대를 안내했다.

(82) 한편 이것을 모르는 왜놈들은 유격대를 《토벌》한다고 한 개 중대를 몽땅 털어 밀영지로 다가 오고 있었다.

(83) 산 우에서 이것을 발견한 문섭이는 재빨리 붉은 기 흰 기로 적 발견이란 신호를 뒤에 보냈다. 그러자 뒤의 아동단원이 리레식으로 이를 다시 유격대에 알렸다.

(84) 그러자 유격대 한 개 소조가 적들을 골짜기로 끌어 들이기 위한 소전투를 벌려 놓았다. 왜놈들은 유격대가 나타났다고 급히 소조원들을 쫓아 골짜기로 밀려 들기 시작하였다.

(85) 골짜기를 에워 싸고 놈들이 기여 들기를 기다리고 있던 유격대원들이 일제 사격을 퍼부었다. 놈들은 난 데 없는 몰사격 바람에 그만 어쩔 바를 모르고 아우성쳤다. 이것을 바라보는 문섭이는 저도 모르게 만세를 불렀다.

(86) 성시에는 위만군 한 개 소대와 자위단놈들만이 남아 있었다. 왜놈들을 단숨에 섬멸한 유격대는 그 달음으로 성시로 쳐 들어 갔다.

(87) 유격대는 단숨에 성시를 해방하였다. 인민들이 떨쳐 나와 유격대원들을 끌어 안고 목 메여 만세를 불렀다. 누군가 붉은기다! 하고 소리쳤다. 소년 하나이 성시 상공에서 붉은기를 휘날리고 있었다. 그것은 문섭이였다.

(88)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 속에 문섭이는 믿음직한 공청원으로, 혁명 투사로 자라났다. 그후 문섭이는 영광스러운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에 입대하여 그이가 가리키는 승리의 길— 조국 광복의 길로 줄달음쳐 나아갔다.

(끝)

이것을 아십니까?

피부를 깨끗이 거두자

피부는 사람의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몸에서 발생한 열을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체온을 조절한다. (사람의 열의 87%는 피부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뿐만 아니라 피지 (피부와 털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를 내보내여 항상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방지한다. 또한 땀 구멍으로는 땀과 함께 몸에서 생긴 탄산가스 등도 내보낸다. 땀은 산 (보통 신맛이 있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서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방지한다.

만약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피부를 깨끗이 거두지 않는다면 먼지, 세균이 피부에 묻어 땀 구멍을 막아 놓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곧 병에 걸리게 되며 피부에 묻은 먼지가 땀과 함께 썩어 피부를 해롭게 한다. 이렇게 되면 털구멍에 고름이 생기며 부스름 병, 고름 딱지병, 옴, 무좀 등 여러 가지 피부 병에 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피부를 보호하고 단련해야 한다.

피부를 보호하고 단련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제일 좋은 것은 랭수 마찰이다. 아침에 조기 체조를 마치고는 랭수 마찰을 하는 습관을 부쳐야 한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과 작업을 끝마친 후와 변소에 갔다 온 후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을 하고 자주 새 내의를 갈아 입어야 한다.

최 죽 산

신천 박물관 진렬장에는 공화국 기'발과 함께 한 소년단원의 사진이 있다. 소년단원들은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발걸음을 멈춘다.

사진의 주인공은 황남 송화군 구란 중학교 단위원장이였던 리 현수 소년이다.

우리들은 그가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의 어려운 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공화국 기'발을 간직하고 적들과 용감히 싸운 소년단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공화국 기'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였다.

열 두 살 난 현수에게는 이제는 머슴살이의 쓰라림도 분함의 눈물도 가시여졌다.

현수네 집은 토지 개혁으로 많은 땅을 받았고 생활은 날로 늘어 갔다.

형님은 마을 세포 위원장으로 일하였다. 현수는 학교에 다니며 행복하게 공부하였다.

난생 처음으로 책상에 마주 앉은 현수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현수의 눈 앞에는 흘러 간 쓰라린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 갔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소 여물을 끓여 가지고 외양'간에 갔다가 그 전날 동무들에게서 배운 글을 땅바닥에 써 가며 익혀 보았다. 그는 매일 소 꼴을 베여 가지고 오다가는 길'가에서 학교 다니는 마을 아이들을 붙잡고 글을 배웠던 것이다.

순간 등 뒤에서 《이놈아… 팔자에 없는 놈이 공부는 무슨 공부야 엉 일은 하잖고…》 하는 불벤 소리가 나더니 등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 지주 승직놈이 소 여물 주걱으로 잔등을 내리쳤던 것이다.

이렇던 현수가 김 일성 장군님의 따뜻한 품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으랴.

현수는 영예로운 소년단원이 되였다.

그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꼭꼭 지키였고 늘 최우등으로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몇해 후에는 중앙 민청《모범 소년단원》의 표창

까지 받았다.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되였다.

그날 현수는 단란하게 모여 앉은 집안 식구들 앞에서 《형님 우리 집 공화국 기'발은 내가 맡아 만들겠어요.》라고 했다. 형님과 형수는 현수의 마음을 알아 마치였다. 형님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아 쥐며 《머슴살이에 등뼈가 휜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어서 우리 집 기'발을 네가 만들어라.》고 하였다.

다음 날 현수는 읍에 가서 비단 천을 사다가 공화국 기'발을 만들었다. 현수는 오직 어떤 일이 있드라도 공화국 기'발을 따라 씩씩하게 자랄 것을 다짐 했다.

전하여져 내려 오는 말

구란리 마을 사람들은 현수에 대하여 두고 두고 외우는 말이 있다.

《자기 동무를 잘 돕고 마을 늙은이들에겐 인사가 밝았지.》 이것은 이 부락 리보배 할머니가 늘 외우던 말이였다.

세월이 흘러 리 보배 할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은 오늘까지도 이 마을 어른들에게 전하여 내려 오고 있다.

분단 위원장이였던 현수는 4 학년에 와서 단 위원장이 되였다. 그는 많은 책들을 읽었다. 《빨찌산의 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는 동무들에게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였다. 현수는 분단의 마라손 선수로 뛰였다. 그는 다른 동무들을 까마득히 떨궈 놓고 맨 앞장에 서서 뛰였다.

그가 남대천을 막 건느려는 때였다.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이고 돌다리를 건느지 못해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제 곧 1 등으로 테프를 끊고 결승선에 들어 설 광경을 그리며 할머니 옆을 지나친 현수는 무심'결에 다시 돌아 보았다. 순간 그의 발걸음이 떠졌다. (저 할머니를 도와 드려야 하지 않는가) 그의 머리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현수의 발걸음은 멎었다. (저 할머니를 도와야 해, 그게 소년단원이 해야 할 일이야, 강을 건너지 못해 애타하는 할머니를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현수는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하나 둘씩 돌다리를 건너 디디였다.

이리하여 이날 현수는 1 등을 못하고 《3 등》으로 운동장에 들어 섰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랑찼고 기뻤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분단에서 공부하는 주 강일 동무는 늘 학습에 뒤떨어졌다.

현수는 강일이를 꼭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분단에 제기하여 강일이를 맡아 나섰다.

이럴 때 현수는 지주 승직놈에게서 얻어 맞았던 자리가 도지면서 한 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되였다. 그러나 현수는 매일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학교에 다니였고 강일이를 도와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다리는 갑자기 더 심해졌다.

《형님 난 분단에서 강일이란 동무를 도울 것을 맡았어요…》 동생의 말 뜻을 알아마친 형님은 동생을 업고 강일이네 집까지 갔다. 마을 사람들은 조직의 위임을 꼭 어기지 않겠다는 굳세인 마음, 동무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 감동되였다. 그후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와 동무들의 도움으로 현수의 병은 곧 나아졌다.

끝까지 간직된 공화국 기'발

현수는 전쟁이 인차 끝나고 다시 행복하게 공부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수네 마을에도 미국놈들이 달려 들었다.

미국 승냥이 놈들은 현수네 부락에 달려 들자 로동당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고 집들에 불을 질렀다. 리 녀맹 위원장으로 일하시던 형수도 놈들에게 체포되여 학살당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치 공작대로 인민 군대와 함께 남조선에 나갔던 형님이 집에 들렸다. 현수는 구월산 빨찌산을 찾아 떠나는 형님에게 자기도 데리고 가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형님은 현수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너는 아직 빨찌산에 들어 가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러니 고향에 남아서 인민들에게 인민 군대가 곧 돌아 온다는 것을 선전하며 굳굳히 싸워라.》 잠시 말없이 서 있던 현수는 《형님! 끝까지 싸우겠어요.》 라고 힘 있게 대답하였다.

형님과 헤여진 현수는 가장 친한 동무들이였던 리 항석, 리 정순, 리 순봉 동무들을 찾아 갔다. 현수와 그의 동무들은 놈들의 눈을 피해 가며 자주 방축골에 모여 앉았다. 그들은 앞으로 빨찌산과 련계를 맺고 싸울 것을 토론하였다.

이리하여 투쟁은 시작되였다. 밤이면 학습장을 뜯어 삐라도 썼다. 《인민 군대는 곧 돌아 온다!》, 《미국 놈들에게 죽음을 주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삐라는 거리와 담'벽마다에 나붙었고 치안대 본부 대문짝에까지 붙었다. 겁에 질린 미국놈들과 치안대놈들은 악착하게 날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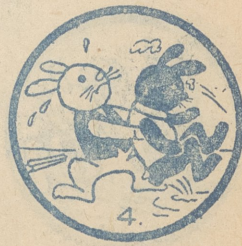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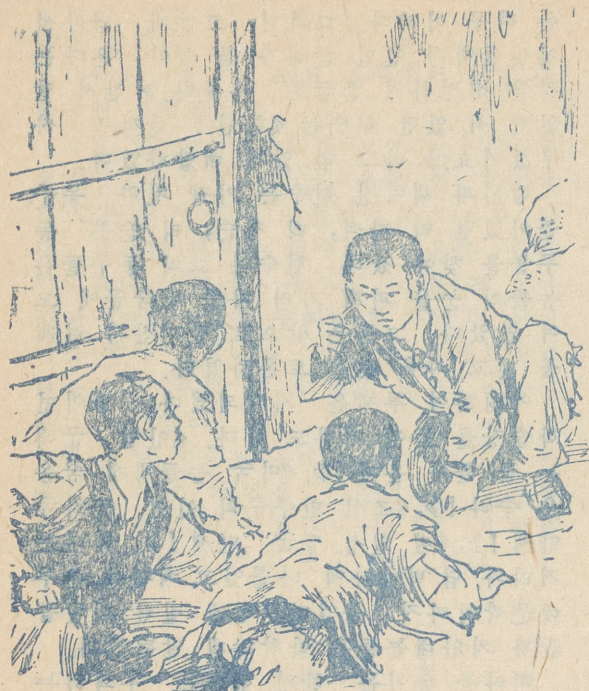
삐라를 붙이는 한편 현수는 후퇴하는 사람들에게 밤마다 구월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군 하였다.

어느 하루는 《앞잡이 교장이 왔어.》 이런 말이 마을에 떠돌았다.

놈들은 앞잡이를 《교장》으로 내세워 마을 아이들을 《학교》에 모여 놓고 거짓 선전을 하자는 수작이였다. 이것을 알아 차린 현수는 그날 밤으로 동무들과 의논하고 놈들의 계획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다음날부터 마을에는 《앞잡이 교장의 말을 듣지 말라!》, 《한 사람도 학교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삐라들이 나붙었다. 한편 항식, 정순, 순봉이는 마을 동무들을 찾아 다니며 학교에 나가지 말도록 이야기 했다.

놈들이 개학 날로 정한 날이 왔다. 학교 운동장엔 앞잡이 교장 이외에 어느 누구도 얼씬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놈들은 끝내 《학교》를 열지 못하였다.

현수는 빨찌산 공작원 아저씨들과 련계를 가지고 놈들의 동태와 무력 배치 정형을 정찰하여 빨찌산에 보고하군 하였다.

방축골에서 동무들과 만나기로 정한 날 밤이였다. 시간이 퍼그나 지나서야 온 정순의 얼굴은 흐려져 있였다. 항식, 순봉이가 놈들에게 체포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현수의 두 주먹은 떨렸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현수는 정순이와 같이 빨찌산 아저씨를 찾아 가기로 하고 공화국기를 가지려 마지막으로 집에 들렸다.

현수는 항상 의롱 속 깊이 간직하였던 공화국 기'발을 꺼냈다. 머슴살이에 등뼈가 휘여지도록 매 맞던 일, 공화국 기'발을 만들던 일, 행복하게 공부하며 야영소에서 즐겁게 뛰놀던 나날, 재미나게 지내 온 소년단 생활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났다.

현수는 공화국 기'발과 함께 가슴 속 깊이 간직했던 소년단 휘장을 꺼내고 중앙 민청 《모범 소년단원》 표창장도 꺼냈다.

갑자기 마을 개들이 요란스럽게 짖어댔다. 미국놈과 치안대놈들이 어스럼 달빛에 보였다. 놈들은 현수네 집으로 오고 있었다. 현수는 바삐 공화국 기'발과 표창장을 무명 보자기에 쌌다. 놈들의 무거운 군화 소리는 더 가까이에서 들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놈들의 더러운 손에 기'발을 빼앗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마루를 뜯고 땅을 팠다.

보자기를 묻고 돌아 섰을 때였다. 놈들이 문을 걷어차며 달려 들었다.

피투성이가 된 현수가 눈을 떠보니 그곳은 랭'기가 뼈속까지 스며 드는 어둑 컴컴한 창고였다. 현수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정순, 순봉, 항식이가 자기를 둘러 싸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정신을 차린 그는 놈들의 눈을 피해 가며 동무들에게 아동단원 만금이가 조국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싸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만금이처럼 싸울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질 때마다 얼고 피투성이가 된 손과 손들은 서로 힘있게 쥐여졌다.

다음 날 새벽 현수는 또 고문실로 끌리워 갔다.

《오늘도 말하잖겠어? 말하잖은 놈들은 다 총살해 치웠다. 마지막 기회를 주니 잘 생각해 봐.》 치안대 대장놈은 손에 권권총으로 현수를 위협했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쏘아댄 그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비겁하게는 살고 싶지 않았다. 조국을 팔고 량심을 속이면서 사는 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일이라 생각했다. 악이 치바친 놈들은 이번에는 송곳으로 손톱을 쑤시였다. 그의 열 손'가락 마다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러나 놈들은 현수에게서 아무것도 알아 내지 못했다.

분이 머리 끝까지 닿은 놈들은 현수를 사형장으로 끌고 나갔다.

(네놈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으나 조선 인민은 다 죽이지는 못한다. 나는 소년단원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티 없이 맑아져 가는 그의 얼굴을 둥근 달빛이 곱게 비쳐 주었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 온 나 어린 애국자—현수가 부른 만세 소리는 온 누리에 메아리쳤다.

보물의 세계를 찾아서

(전호에서 계속) 김 동섭 그림 양 재혁

눈 뜬 장님

창밖은 먹물을 칠한듯이 캄캄하였다.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운전대 앞에 달린 수 많은 계기의 퍼런 바늘들만이 반디'불마냥 하느적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불러 봐도 대답이 없어요.》

아까부터 땅 우와 련락을 맺으려고 쉴 새 없이 무전을 치던 혜선이가 맥 없이 수신기를 벗으며 말하였다.

땅 속에서 땅 우와의 무전 련락은 보통 전파로는 될 수 없었다. 다만 특별한 파장을 가진 라디오파로서만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을 알고 있어야만 통할 수 있었다.

큰 희망을 걸었던 무전기마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들은 머리를 떨구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고 수레 안엔 무거운 공기가 떠 돌았다.

《이젠 눈 뜬 장님이 된 셈이야,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우리 네 사람이 한 몸이 되여 찾아 나가는 수 밖에.》

정남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동무들의 시선은 일제히 정남에게 쏠렸다.

《혜선 동무는 계속 무전으로 탐사대 본부를 찾을 것, 연희 동무는 테레비존으로 부단히 정찰할것, 종철 동무는 나의 지시에 계속 앞으로 전진할 것, 모두들 자기 위치로!》 좁다란 지휘실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정남이는 힘차게 말했다.

수레안은 곧 활기를 띠고 모두들 자기 자리로 뛰여 갔다.

《앞으로!》 정남이의 구령이 내렸다.

발동기가 울리고 수레는 먹물에 빠진 듯이 어둠 속을 뚫고 더듬더듬 기여 앞으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였다.

《마그마 광상이 나타났어요.》 열심히 앞길을 정찰하고 있던 연희가 기쁨에 차서 웨쳤다. 천연색 테레비존의 책상 만한 화면에는 울긋불긋한 것이 나타났다.

《음 맞았어, 여기가 바로 부글부글 끓는 돌물이 땅 속 깊이에서 솟구쳐 나오는 과정에 랭각되며 굳어져서 된 광상이지.》

정남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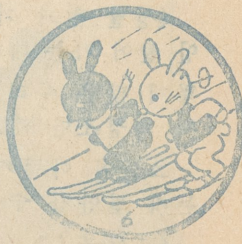
《그럼 여기에 철이나 동이 있겠구나.》

이번엔 종철이가 신이 나서 웨쳤다.

화면은 이따금 회색 혹은 갈철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노란빛을 띤 붉으스레한 빛으로 변하군 하였다.

《이건 적철광 같은데?》

이렇게 말하며 성분 분석기를 들여다 보다가

《조혼색이 벽돌색이야, 저러니까 이건 적 철광이

구나.》 성분 분석기를 드려다보던 정남이가 웨쳤다.

성분 분석기 복판에는 가루로 빻아진 광석 가루의 색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색을 보고 그 것이 무슨 광물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여 있었다.

《맞아요. 경도가 5.8, 비중이 5 예요.》 연희는 그 옆에 있는 경도계와 비중계의 바늘을 책과 번갈아 보면서 맞장구를 쳤다.

《우리 나라엔 갈철광이 더 많다지.》

《응 그래 그러나 갈철광이 있는 곳엔 적철광도 있대.》

그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듯 서로 신 나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아니나 다를가 다음 순간 성분 분석기에는 얼숭덜숭한 흑갈색 덩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흔색이 황갈색, 경도는 4, 비중은 3.8, 틀림 없는 적철광이예요.》 연희가 큰 발견이라도 한듯 소리를 돋구어 웨쳤다.

그들은 신'바람이 나서 이젠 모든 것을 다 잊고 탐사에 열중하였다.

《야! 많기두 하다.》

가도 가도 계속되는 철광에 종철이는 놀랬다.

《그럼, 우리 나라엔 철광석이 수십 억톤이나 매장되여 있으니까.》 정남이의 대답이였다.

《그럼 일년에 수백만 톤씩 캐내서 선철 강철을 만들어 내도 아직 수백년 동안 캘 것이 남아 있단 말이지.》 셈이 빠른 혜선이가 손가락을 곱아 보며 말하였다.

《그거면 1년에 수만대의 공작 기계, 뜨락또르 자동차, 그밖에도 수 많은 기계들과 설비들을 만들 수 있지.》 연희가 흥분된 어조로 참견하였다.

《정말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야, 철이 안 들어 가는 데가 없거든, 그러니 철이 이렇게 많은 우리 나라는 얼마나 좋아! 김책 제철소만 해도 강철 300 만 톤이라.》

그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안간 수레가 문득 멎었다.

《아이쿠!》

연희는 하마트면 테레비존 영사판을 깨뜨릴번 했고 종철이는 수레 천장에 머리를 쾅 부딪쳤다.

발동기는 계속 부르릉대고 있는데도 수레는 그 누가 쥐여 당기는듯 옆으로 바싹 끌리워 가더니 꼼짝 못하고 그자리에서 바둥대고 있는 것이였다.

《이게 웬일이야?》 그들의 눈이 모두 휘둥그레졌다.

《어디에 빠졌나?》

《무엇이 붙잡고 있는 것 같애.》

혜선이는 무서워서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종철이는 조종간을 힘껏 잡아 당겼으나 수레는 그 자리에서 바르르 떨기만 하고 한 발자욱도 나가지 않았다.

급해 맞은 연희와 종철이는 수레를 힘껏 밀었으나 안에 타고 아무리 밀어 봐야 수레가 나갈 리는 없었다.

그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조용히!》정남이가 소리쳤다.

종철이도 연희도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자기 위치로!》 정남이는 태연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수레가 온통 떠는 바람에 목소리도 떨렸다.

《발동 멈춰!》 요란하던 발동기 소리가 뚝 멎었다. 그들은 바싹 귀를 기우렸다. 사방은 고요했으나 귀는 멍멍하였다.

《기계들을 점검할 것!》

정남이의 구령에 따라 모두 제각기 맡은 기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주파 착공기도 수레 바퀴들도 조종 장치도 모두 정상적이였다.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들은 얼굴만 마주 바라 보았다.

이때 고개를 떨어트리고 테레비촌 영사막을 물끄럼히 바라 보고 있던 종철이가 갑자기 깔깔 웃으며 말하는 것이였다.

《이걸 보렴, 우리를 붙잡고 있는〈괴물〉이 보인다.》

《뭣이?》

눈이 휘둥그레진 정남이와 연희가 영사막 있는 데로 뛰여 갔다.

그런데 아무리 눈여겨 보아도 괴물은 보이지 않았다. 영사막엔 다만 흑색 빛갈만이 골고루 비처져 있었다.

《어디?》 그들은 정말 어리벙벙해져 영사막과 종철이를 번갈아 보기만 하였다.

《조흔색 표식을 보란말이야.》 종철이는 으쓱해서 말하였다.

《아하 검은 색.》 그제서야 정남이는 무릎을 탁 치며 웨쳤다.

《우리가 지금 자석에 붙어 있구나.》

《괴물은 바로 자철광이였구나.》

그들은 어이가 없어 한바탕 웃었다.

끌어 당기는 자철광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 수레는 곧 절연제를 내 뿜었다. 이것은 수레를 청소하는 장치였지만 자력 절연 작용도 하게 되여 있었다.

수레는 스르르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검은 색 바위가 사방에 빽곡히 둘려 있었다.

땅 속의 호수

《어이쿠!》

걷잡을 사이도 없이 수레는 데굴데굴 가파로운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바구니 속에 든 밤알처럼 정신 없이 뒹굴었다. 다행이도 땅크병 모자 같은 안전 모자가 그들의 머리를 보호해 주었다.

한참만에 수레는 《풍덩》하고 물에 빠졌다. 한 동안 거품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가라앉다가 다시금 떠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레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들은 모두 천정에 매 달려 있었다.

수레가 가볍게 떠 오르는 바람에 온 몸의 피가 발밑에 모여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쾌하였다.

창밖의 뿌연 젖빛에 탐조등의 그 센 불빛마저 빛을 잃고 있었다.

《이거야 어디 견디겠나.》 거꾸로 매달린 정남이가 소리쳤다.

떠 오르던 수레는 두둥실 멎었다. 찰삭대는 소리가 나는걸 보니 3분의 1 가량이 물 우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종철이는 앞으로 전진시키려고 다급히 발동을 걸었다. 수레에는 물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게 추진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런데도 수레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다.

《제길 뒤집혔으니깐 추진 날개가 물 우에 나와 있겠군.》 종철이는 이렇게 투덜대면서 발동을 꺼 버렸다.

《자 모두들 이쪽으로 붙어.》정남이가 오른 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말하였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혜선이가 무전기의 손잡이를 꽉 잡은채 웨쳤다.

《어서 이리 와! 그러면 무게 중심이 변해서 수레가 뒤집힐게 아니야.》

《음 그럴듯 한데.》

그들은 살살 기여 오른편에 모였다. 수레는 옆으로 제껴졌다가 훌떡 제대로 엎어졌다. 종철이는 다시 발동을 걸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수레는 앞으로 달려 가기 시작하였다.

《야! 땅속 호수의 배'노리도 멋있구나.》 연희는 신이 나서 테레비죤 영사막을 들여다 보며 웨쳤다. 마치 잔잔한 바다'가에서 배를 타면서 바다 밑을 나려다 보는듯 하였다. 맑고 투명한 물 속엔 우툴두툴한 바위들이 갖가지 기묘한 모양을 이루며 있었다. 그러나 해초, 물'고기 같은 것은 없었다. 이따금 바위는 물 우까지 삐죽 솟아나 있었다.

《진짜 땅 속의 해금강이로구나!》

《여기다가 뽀트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네.》 테레비죤 앞에 모여 선 그들은 아름다운 경치에 그저 황홀해서 어쩔줄 모른다. 수레는 바위 틈을 누비며 계속 앞으로 달렸다.

《우리 지구는 이층집이야.》

《여기다 고기를 기르지 못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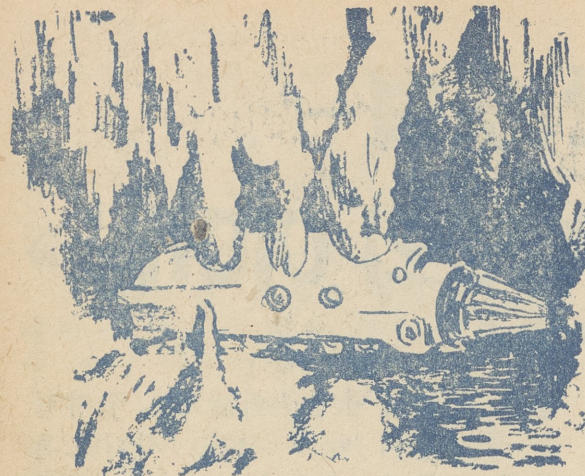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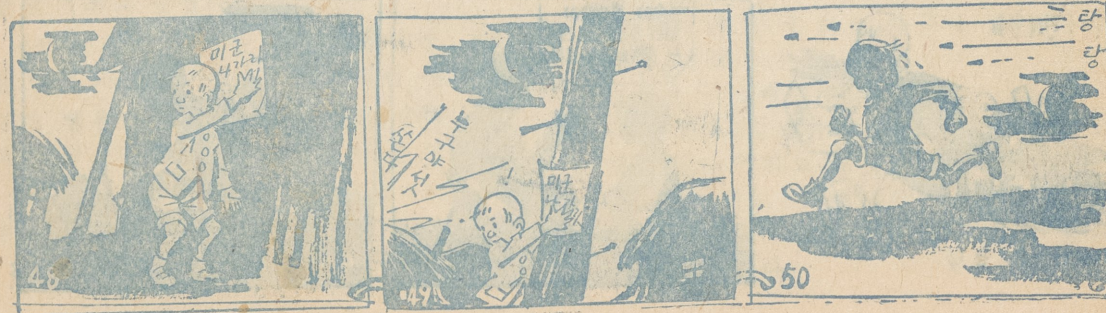
《안돼 이 지하수에는 류황같은 원소들이 있어서 고기는 살 수 없어.》

《아하 이 물은 비중이 커서 이렇게 수레가 잘 뜨는가봐. 그때 과학원 연구사 선생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그렇지!》 아이들은 신기한 현상의 원인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가는 게 여간 재미나지 않았다.

이때 영사막에는 갑자기 우 아래에서 삐죽 삐죽 솟아 난 유리색 바위들이 나타났다. 그 바위들의 사이로는 넓은 굴이 사방으로 뻗었고 대리석에 조각을 한듯한 기묘한 모양을 한 기둥들이 여기 저기 뻗히고 서 있었다. 마치도 옛말에 나오는 수정궁이 여기인상 싶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경치에 일제히 《야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석회암이 물에 씻겨 내려 가고 된 굴인가봐.》 종철이가 수레를 굴 속으로 몰아 넣으면서 말하였다.

사람이 춤 추는듯한 기둥, 뱀이 도사리고 있는듯한 바위더미, 사자 머리, 바닥에 널린 죽순같은 조각들…이 모든 것이 투명한 유리빛과 우유 빛으로 되여 더욱 아름다왔다. 수레에서 비치는 탐조등의 불'빛이 스쳐 지나 갈 때마다 그 것들은 번들

번들하며 넘실대는 것 처럼 보였다.

《정말 동화의 세계 같은데.》 정남이는 혼자'말 처럼 중얼거렸다.

굴은 갈수록 더 넓어졌다. 어느 구석에서 금시에 무엇인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소년 궁전만 못지 않은데!》

《여기다도 궁전을 꾸려야겠어.》

《아니 여기다간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비닐 공장을 지어야 돼!》

이렇게 서로 자기가 생각해 낸 설계를 이야기하는데 테레비죤 영사막의 한 구석에 붉은 불꽃이 깜빡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였다.

《저기'불!》연희가 소리쳤다.

아이들은 일제히 영사막을 노려 보았다. 어두운 밤, 멀리서 보는 담배'불처럼 빨간불이 깜박하고는 사라지는 것이였다.

다음 순간 또다시 빨간 불이 머리를 바싹 쳐들고 꼬리를 하늘거리더니 기둥 사이로 슬쩍 자취를 감추었다.

《전투 준비!》정남이는 주먹을 부르쥐고 웨쳤다.

종철이는 《찰가닥》소리를 내면서 비상용 기관총의 격발기를 당겼다.

소년들은 숨을 죽이고 앞을 주시했다.

수레는 부비대면서 육박해 갔다. 아까 그 놈이 나타난 곳에 이르러 탐조등을 휘둘러 보았으나 아무 것도 없었다.

《이 놈이 어디로 도망쳤어.》 종철이는 방아쇠를 굳게 쥐고 웨쳤다.

《저기다!》하고 연희가 소리쳤다.

테레비죤 영사막의 한 구석에 수상한 불빛이 이번엔 더 크게 번쩍하고 사라졌다.

《저놈이 우리를 홀리려구, 어림도 없지, 계속 앞으로!》 정남이는 손에 땀을 쥐며 웨쳤다.

굴은 점점 더 넓어지고 기둥도 이젠 드물었다.

《저 쪽에도 있어!》 연희가 소리쳤다. 왼편에서도 똑같은 불꽃이 솟아 오르는 것이였다.

《이쪽에도!》 연희는 이마의 머리칼을 씻어 올리며 다급히 놀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영사막의 여기 저기에 불꽃이 나타나서 넘실대기 시작했다.

《저 놈들이 우릴 포위하려 드누나…》 종철이는 그 중 한 놈을 겨누면서 웨쳤다.

《잠간만!》 정남이가 무겁게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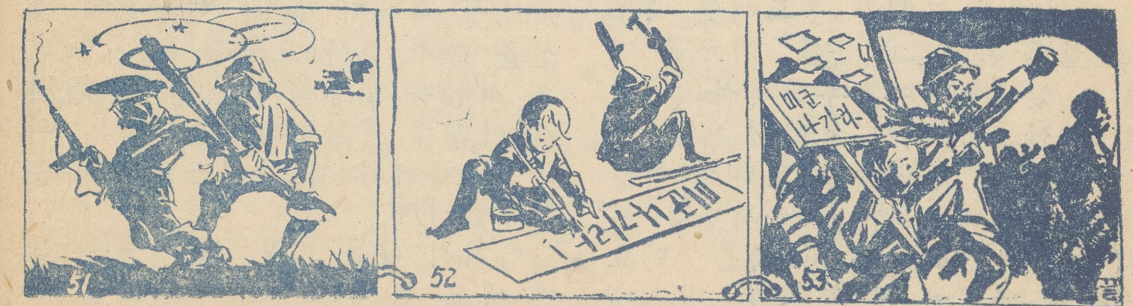
《네놈이 어떡할테냐!》 종철이는 한번 해보겠다는 듯이 팔 소매를 걷어 올렸다.

수레가 전진 할 수록 점점 더 많은 불꽃이 하느적거렸다. 그리고는 제가끔 하늘로 헤염쳐 올라 가는 것이였다.

수레는 조심 조심 다가갔다.

갑자기 불꽃들은 훨훨 타오르더니 삼'단같은 불기둥이 솟아 오르며 수레의 앞길을 막아버렸다. 영사막은 불바다가 되여 버렸다.

《음!》 종철이도 할 수 없이 수레를 멈추었다.

(다음호에 계속)

과학자의 이야기

꾸준한 노력—이것은 《발명의 어머니》

로력 영웅 주 종명

나를 찾아 오는 소년단원들은 나에게 철 픽스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묻군합니다.

그러면 나는 해방 후 학교에서 공부하던 이야기부터 하군합니다.

나는 해방 전에 월사금을 바치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후 공부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해방 후 비로소 나도 동무들과 같이 당의 품 속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되였고 오늘은 황해 제철소 철 픽스 연구실장으로 떳떳하게 나라의 주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학교에서 공부하던 때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실험을 참 좋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학교에서 배우기만 하면 그 날에는 꼭 책을 펴쳐 놓고 그대로 해보군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였습니다.

전기에서 도체와 부도체를 배우고 집에 와서 그 실험 기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밥을 짓고 계시던 어머니는 《오늘은 또 무슨 장난을 하느라고 이렇게 뚝딱거리느냐?》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면 꼭 끝장을 내고야 말군 하였습니다. 이날도 꾸지람을 들으면서 밤 2 시가 지나도록 실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도체와 부도체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물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나는 책을 아주 귀중히 여겼습니다. 학교 시절엔 물론 지금도 책은 나의 친근한 동무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 때 전선에 나가면서도 나는 무엇 보다도 학교에서 공부하던 책과 노트 그리고 도면들을 가장 귀중히 보관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책들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우리 공장에 오셔서 수입탄을 적게 쓰고 우리 나라 무연탄으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들 수 있게 연구하라고 교시 하셨을 때 철 픽스를 만들 것을 생각한 나는 우선 책을 보았고 책에서 석탄의 성질, 철광석의 성질을 다시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탄과 철광석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기 위해 수 백권의 책을 읽으면서 학습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기본 법칙들을 찾아 냈고 철 픽스 연구의 열쇠를 얻게 되였습니다.

다음에 현실 속에 들어 가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는 작업 현장에 나가 기본 법칙들이 어떻게 리용되고 있는가를 보았고 그 속에서 의문되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애썼습니다.

비 오는 날 옷 젖는 것도 모르고 용광로 앞에서 밤을 새운 일도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세계 과학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낸다고?…》하며 어떤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아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드디어 철 픽스를 만들어 내고 첫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용광로 밑통의 온도가 낮아서 스라크와 용선이 갈라지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실험은 실패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러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천 번 실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별아별 곤난이 다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마다 원수님의 교시를 다시 외워 보고 새 힘을 얻군 하였습니다. 나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다시 연구하고 두 번 실패하면 세 번 다시 연구했습니다. 그리하여 4,000 여 회의 실험을 거쳐 1958년 9월 28일에 드디여 성공을 보았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 하자고 마음 먹고 노력하면 못 할 일이란 없습니다. 배우고 실험하고 또 배우고 실험하는 꾸준한 노력—이것은《발명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 제4차 당 대회 결정을 받들고 꾸준한 노력으로 쓸모 있는 지식을 키워 앞날의 과학자로, 기술자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훌륭히 준비합시다.

황북 황주군 황주 초등 학원 단 1 분단 최 경구 동무

어느 날 학원에서는 경구 동무에게 라지오를 고치라는 과업이 맡겨졌습니다.

오늘까지 스피카, 전기 종 등 간단한 것들은 고쳐도 보고 만들어도 보았지만 라지오는 직접 고쳐 본 일이 없었습니다.

소년 신문에 발표된 《라지오를 만드는 방법》을 오려 가지고 다니며 늘 라지오에 대하여 배우려고 애쓰던 경구 동무에서 라지오를 맡겨 주는데 대해서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어쩐지 고쳐 낼 자신이 있을상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과업을 아주 기쁘게 맡았습니다. 그는 먼저 스위치를 끚고 진공관을 검열해 보았습니다. 진공관엔 모두 불이 왔습니다. 경구 동무는 복잡하게 련결된 도선들을 하나씩 훑어 보면서 떨어진 곳이 없는가를 살피였습니다. 고성기에 련결된 도선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청강수 대신 송진으로 납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산에 올라가 송진을 긁어 왔습니다. 땜을 한 경구 동무는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나더니 《여기는 조선 중앙 방송국입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날 지도원 선생님은 참 훌륭한 기술을 배웠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날부터 경구 동무는 전기 기술 도서도 읽으며 열심히 물리 공부를 하였습니다.

라지오는 며칠 후 또 고장이 났습니다.

송진으로 땐 것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때고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공관 하나가 불이 오지 않았습니다. 뽑았다 맞춰다 해 보아도 불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공관이 마자진 것입니다.

이럴때 마침 학원에서는 황해 제철소에 한 달 실습을 가게 되였습니다. 경구 동무는 지도원 선생님에게 제기하여 실습 가는 길에 라지오를 송림 수리소에 가져다 고쳐 오기로 했습니다. 꼬마 방송실 암쁘도 함께 고쳐 오기로 하였습니다. 실습하는 기간 기어코 라지오 기술도 배워 오겠다고 마음 먹은 경구 동무는 실습 기간 짬만 있으면 수리소에 찾아 가군 했습니다. 수리소에서 라지오의 구조, 도선 련결법, 진공관 끼우는 법, 암쁘, 라지오 마이크, 고성기의 연결 법 등을 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경구 동무는 라지오를 척척 고쳐 내게 되였습니다. 꼬마 방송실에서 나오는 고성기 소리를 듣는 이곳 소년단원들은 경구 동무를 《우리의 꼬마 전기 기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겐 정말 자랑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제 자랑은 아니예요.

우리 어머니와 온 식구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 형제들의 이름부터 소개할가요.

신 청자 (19 세), 신 명자 (17 세), 신 인덕 (15 세), 신 인도 (13 세), 신 숙자 (11 세), 신 인선 (9 세), 신 숙희 (6 세), 신 인수 (4 세), 신 인길 (2 세), 이렇게 아홉 남매예요.

제 이름은 인도구요.

이렇게 많은 형님, 누나, 동생들이 있는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많은 아들 딸과 함께 있는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행복하구요.

지주집 머슴 살이의 막내 딸로 태여난 어머니의 어린 시절, 그 때 같으면야 이 많은 아들 딸을 데리고 오히려 고생스러웠겠지만 오늘의 사회주의 조국에서야 무슨 걱정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해주 시 연양리에 들어 서면 곧 4 간짜리 큰 기와집이 보입니다.

이 집에서는 매일 아침 한 물커리의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학교로 갑니다.

어린 동생의 손목을 잡고 유치원에 들렸다 가는 아이들도 있고 서로서로 앞을 다퉈 탁아소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우리 집이고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형제들이랍니다.

벽성 고등 농업 학교에 다니는 청자 누나를 빼 놓고 일터와 학교에서 온 식구가 다 모인 저녁은 또 어떻구요.

제가 맡은 일들을 다 해 놓고 학습실로 정해 놓은 두 개의 방에서 서로 돕고 배우며 공부를 하지요. 이 때면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들의 학습을 보살피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 아홉 남매의 자애로운 어머니며 또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집은 다정스럽고 행복한 가정이면서 하나의 작으만한 《학교》이기도 하지요.

우리 9 형제를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훌륭한 아들 딸로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 하고 계신답니다.

두 학습실엔 라지오와 스피카를 사 놓으셨고 음악가가 되겠다는 명자 누나에겐 키타까지 사 주셨어요.

우리집엔 염소 2 마리, 토끼 3 마리,

닭 15 마리, 돼지 3 마리, 개 한 마리 이렇게 가축들도 많지요.

이 많은 가축들은 다 우리 형제들이 제각기 맡아 훌륭히 기르고 있지요.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에게 로동을 사랑하며 배운 지식을 로동 속에서 쓸모 있게 다져야 앞날의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 우리들의 재간과 힘에 맞게 가축 기르기와 집'일을 나눠 주시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다지게 하지요.

나는 숙자의 공부를 맡은 외에 토끼와 뒤'뜰악 꾸리기를 맡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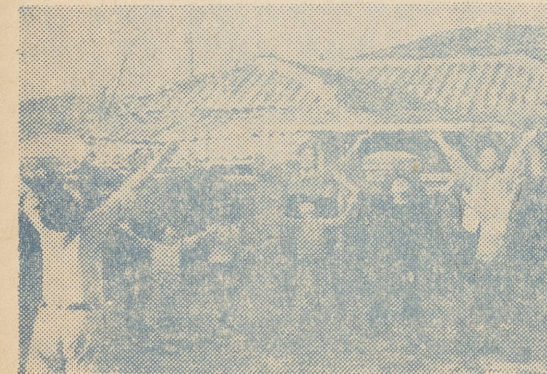
우리의 나날은 실로 보람 있게 흐릅니다. 경쟁 도표를 만들어 놓고 저녁마다 하루에 한 일을 꼭꼭 총화하고 넘어 가지요.

아버지가 봉급 타는 날엔 한 달 동안의 총화가 있지요.

처음엔 제가 맡은 것만 빨리 해 치우느라고 모두들 여간 애 쓰는 게 아니였어요.

《애들아! 지금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좋은 일 하기가 벌어져서 서로 도와 주고 이끌어 나간다는데 너희들은 이번 총화를 지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니?》

첫 달 총화를 지을 때 우리는 어머니의 이 말씀에 서로 마주 보며 얼굴을 붉혔어요. 사실 우리는 자기 이름 우에 붉은 별이 더 많이 올라 가게 할 것만 생각하고 형님, 누나, 동생들이 맡은 일을 서로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달 총화가 있은 날부터 우리는 서로 돕게 되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있은 이야기 한 토막을 들어 보겠어요.

내가 눈을 번쩍 뜨고 앞 마당에 뛰여 나가니 명자 누나와 인덕 형님이 벌써 나와 부엌에 석탄을 날라 들이고 있었습니다.

전 날 밤에 석탄을 실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이렇게 우리 형제들은 남 먼저 몰래 뛰여 나와 석탄을 날라 들였지요.

우리가 다 날라 들이고 아침 체조 준비를 하는데 《석탄이 다 어디 갔니?》 하고 눈을 비비며 인민반 1 학년에 다니는 인선이가 뛰여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 한바탕 웃었지요. 인선인 제일 늦게 일어 나고도 제가 제일 일찍 일어 난줄로 생각했던 모양이예요.

벌써 유치원에 다니는 숙히도 탁아소에 다니는 인수, 인걸이도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인덕 형님이 만들어 준 비행기, 자동차, 뜨락또르 등 놀음'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답니다.

이 날 저녁 총화 때였습니다.

경쟁 도표를 한참 동안 보시며 생각에 잠기셨던 어머니가 《인선인 오늘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검은 별만 올렸니?》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인선인 오늘 아침 남들 보다 늦게 일어 났지만 지난 밤 자기 전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 나 석탄을 나르자고 생각했을 게야, 이런 마음은 참 훌륭해.》 하시면서 어머니는 붉은 별을 달아 주는 게 어떤가고 우리에게 물었어요.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말씀은 참으로

하루의 일은 아침 체조로부터 시작되지요

어머니가 들려 주는 항일 빨찌산 회상기 이야기는 언제나 신이 나지요

옳았습니다.

《좋겠어요 어머니!》 우리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인선이의 이름줄에 붉은 별을 올려 주시면서 《그러나 모자를 똑바로 쓰지 않고 다니는 버릇은 고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선인 벌쭉 웃으며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였어요. 그러자 방안에는 유쾌하고 명랑한 웃음이 터졌지요.

뒤'이어 명자 누나의 키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와 춤으로 한바탕 즐겼습니다.

그 후부터 인선이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거울 앞에 마주 서서 모자를 똑바로 쓰고 붉은 넥타이와 옷차림을 단정히 하군 합니다.

금년 여름 방학에 들어 서기 전 일이였습니다. 최우등을 한 명자 누나와 인덕 형님,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우등을 한 인선이를 둘러 싸고 막 좋아서 뛰였지요. 이런 때 대견스레 우리들의 얼굴을 훑어 보시던 어머니는 《최우등을 한 너희들께 이 어머니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구나.》 하시더니 그 언젠가 하루 아침 밥을 늦게 지으신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어요. 사실 그 전날 밤 어머니는 어린애를 낳는 이웃집에 가 계시다가 아침 식사를 좀 늦게 했었지요. 그래서 처음 한 번 지각을 한 명자 누나가 그날 저녁에 어머니 앞에서 막 운 일이 있었지요. 지금도 이 누나는 이렇게 성미가 급한게 제일 흠이예요.

우린 어머니에게 무슨 대답을 드렸으면 좋았을가요.

이때였어요. 인민반 3 학년에 다니는 숙자가 일어나 《어머니! 그건 우리의 잘못이 더 커요. 우리가 바쁘신 어머니를 잘 돕지 못했기 때문이예요.》 하고 숙였던 머리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머리를 들고 《그래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좋은 어머니입니까!

협동 조합 작업반 선동원이고 녀맹 부위원장인 우리 어머니, 학부형회 위원장인 우리 어머니,

3 개월 동안 병원에 찾아 다니며 애써 배워 조산원 자격까지 받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많은 일을 맡아 하시면서도 어머니는 그 언제나 우리 9 남매가 다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도록 돌보십니다.

자주 학교에 찾아 가 분단 지도원 선생님들을 만나 우리의 소년단 생활을 알아 보시며 또 소년단 사업에 대하여 배워 오시지요. 어머니는 저녁 총화 때면 자주 우리 반 생활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내께 붉은 별이 더 오를건 뻔하지요.

이럴 때면 반장인 나는 우쭐해서 모범 반을 만든 경험을 형님, 누나, 동생들에게 말하지요.

이런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우리 형제들은 늘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하며 소년단 생활을 더 잘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더 잘 도울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하군 합니다.

우리 집엔 자주 마을 사람들과 낯 모를 사람들이 찾아 오군 합니다. 어느 누나가 얻어 준 돈지갑 임자, 어느 동생이 집을 들어다 드린 할머니,

우리 9 남매가 학교에서, 거리에서, 길'가에서 한 수 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 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우리 집을 두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로동당 시대의 어머니》, 《공산주의 가정》, 《그 어머니에, 그 아이들》 등으로 말이지요.

모두다 자랑스럽고 행복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크나큰 자랑과 행복은 또 어찌합니까.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가하셨던 어머니가 앞가슴에 번쩍번쩍 국기 훈장 2 급을 빛내이며 오셨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원수님의 말씀을 빨리 알려 주세요.》 훈장 단 어머니의 가슴에 왁 매달리는 우리의 가슴은 끝없는 행복과 자랑으로 들먹거렸습니다.

공산주의 휘황한 우리의 앞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날을 위하여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 9 남매는 더욱 열심히 배우며 사회주의 조국의 깨끗하고 튼튼한 붉은 꽃봉오리로 자라겠습니다.

로동을 즐겨하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주시 연하 중학교

초급반 1학년 1반

신 인 도

만능 전자석을 만들었다

황북 송림시 서광 중학교 단 김 영걸 동무

지금 서광 중학교 단 소년단원들은 제 4 차 당 대회 문헌을 깊이 학습하고 배운 지식을 더욱 쓸모 있게 다지기 위하여 모두가 힘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물리 실험실에서는 딱,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리 크루쇼크원인 김 영걸 동무가 만능 전자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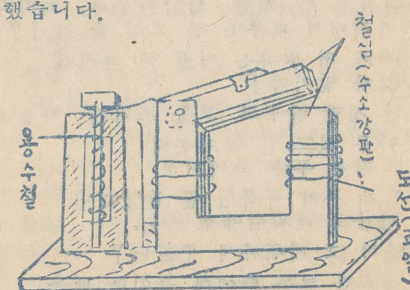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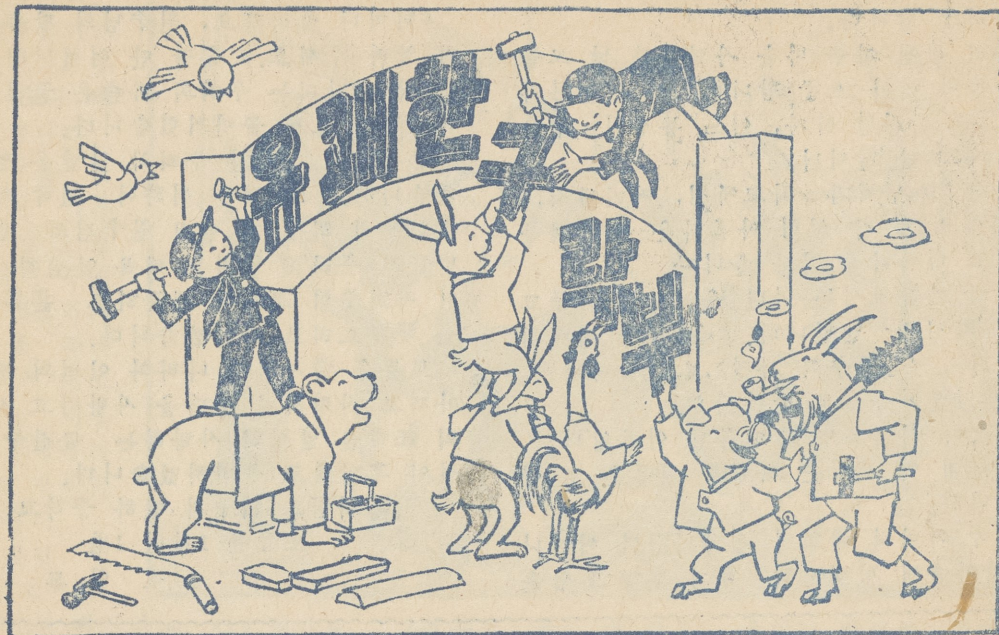
영걸이는 변압기, 전자석, 물 저항기, 스피카 등 40 여 점의 실험 기구를 만들어 놓은 《어린 기술자》랍니다.

며칠 전에 영걸이는 전자석과 변압기에서 같은 재료 (철심과 도선)로써 만들어진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자석 실험 기구와 변압기 실험 기구를 한 개의 실험 기구로 만들어 전자석 실험도 하고 변압기 실험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영걸이는 곧 물리 선생님을 찾아 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생각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몹시 칭찬했습니다. 이날부터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림과 같은 도면을 그리고 제작에 달라 붙었습니다.

철심과 도선, 용수철, 각종 볼트와 낫트 기타 부속품들을 단 위원회에 제기하여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로써 부분품들을 도면에 의해 만들었습니다.

만든 부분품들을 도면 대로 조립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뜻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걸이는 스위치를 넣은 채로 못을 두 철심 끝에 가까이 가져다 대 보았습니다. 두 끝은 모두 못을 잡아 당기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서 두 철심 끝의 사이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었고 용수철이 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걸이는 가는 용수철로 바꾸어 맞추고 나사를 풀어 철심 두 끝을 가까이 한 후 다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철심 두 끝이 부닥치면서 《딱》 하는 소리를 내였습니다.

이리하여 영걸 동무는 한 개의 실험 기구로써 변압기와 전자석 실험도 하고 송신 수신 련습에도 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실험 기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린 기술자들의 모임에서는 이것을 《만능 전자석》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해주 유자녀 학원 초급반 1학년 집체작

룡문, 명옥 (무대 오른쪽에서 나오며 노래)
　넓고 푸른 저 하늘에
　우리의 기'발 높이 날리며…

룡문 야 참 좋구나!

명옥 나가자! (노래를 그치고) 아니 넌 뭘 보고 그렇게 감격해서 야단이니?

룡문 (시를 읊듯)
　여섯 개 고지는 기쁨의 고지 행복의 고지
　아 고지마다 승리의 붉은 기'발
　자랑스레 펄펄펄 휘날리누나!

명옥 호호… 제법 감정을 잡는데…
　나도 한번 읊어 볼가
　오 조국의 고지! 승리의 고지!

룡문 뭐뭐? 앤 정말 답답하구나, 고지라니까 지리에서 배우는 산 고진 줄 아니?
　저기 저 빛나는 여섯 개 고지를 보란 말이야!

명옥 넌 정말 알구도 모를 소리만 하는구나,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고지는 무슨 고지니?

룡문 얘가 무척 똑똑한 줄 알았더니 단단히 배워줘야겠구나.

명옥 아니 또 배워까지 주겠니?

룡문 모르면 코를 땅에다 붙이구 배우란 말이야.

명옥 그럼 네가 보인다는 고지는 무슨 고지니?

룡문 1962년도에 점령할 여섯 개 고지도 모르니?

명옥 응 난 또… 그 고진 줄 알았다면 벌써 알았겠다 얘, 그걸 모르는 소년단원이 어디 있니?

룡문 하하… 부끄러우니 말두 별나게 하는구나.

명옥 (몸을 흔들며) 넌 이 많은 소년단원들 앞에서 망신만 시키는구나.

룡문 그럼 명옥아, 무슨 고지가 보이니?

명옥 500만톤의 알곡 고지.

룡문 (시를 읊듯)
　몇 천년을 잠들었던 땅도
　우리 조합 뜨락또르 갈아 번지고
　관개수 넘실 넘실 흘러 들어
　억년 가물을 모르는 옥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더미더미 좋은 비료 실어 내고
　흰 눈 같은 비료 담뿍담뿍 뿌리더니
　아, 500만톤 알곡 고지
　태산보다 더 높구나!

명옥 야 참 굉장하구나 (룡문이를 잡아 끌며) 룡문아 빨리 저 고지에 뛰여 오르자.

룡문 넌 아무 것도 모르면서 성미는 왜 그리 급하니. 저 고지에 오르는게 그리 쉬운 줄 아니?

명옥 자꾸만 비꼬지만 말구 곧바루 말하렴.

룡문 너 1962년에 우리 도에서 알곡을 얼마나 생산하게 되는지 아니?

명옥 글쎄…

룡문 그것 봐 그러구두 500만톤 고지에 올라? 130만톤이야 130만톤!

명옥 그러니 우리 소년단원들도 협동 조합 아저씨들을 힘껏 도와 드려야겠구나.

룡문 그렇지, 퇴비두 만들구 노래와 춤 재담두 가지고 나가구 협동 조합 아저씨들의 바쁜 일손두 적극 도와 드려야해.

명옥 우리 학교 실습지도 잘 가꾸어 500만톤 알곡 고지 점령에 이바지해야지.

룡문 옳지 이제야 눈이 트는구나
　그리고 또 한 고지는?

명옥 (생각에 잠기면서) 응 전 뭐드라…

룡문 기름진 이밥에 고기국은 얼마나 맛 있겠니,

명옥 그래 그래 수산물 80만톤.

룡문 맞았어, 북소리 둥둥 만선기 펄펄 날리며 큰 놈, 작은 놈, 긴 놈, 짧은 놈, 붉은 놈, 기는 놈,다 잡아 들여 쌓은 수산물 80만톤의 고지.

명옥 아니 큰 놈, 작은 놈이란건 또 뭐니?

룡문 큰 놈은 고래구 작은 놈은 멸치 같은 것들이구.

명옥 그럼 붉은 놈은 뭐니?

룡문 하하 너 오늘 아침 식탁에 오른 반찬 가운데서 어느 반찬이 제일 맛 있더니?

명옥 조개루 만든 기름튀기지 뭐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오라 알만해 조개야.

룡문 암만 그래두 넌 머리가 둔해 척척 맞춰주어야 말할 재미도 있지 이건 뭐… (나가련다)

명옥 (붙잡으며) 조금만 참으렴. 기는 놈은 또 뭐니 응? (사정하듯)

룡문 기는 놈? 발이 열개 달린 게.
　(명옥의 팔을 꼬집는다)

명옥 아야야 왜 이래.

룡문 넌 머리가 텅 비였어 식물, 동물 다 배우고도 바다'고기 이름도 모르니 참.

명옥 아니 텅 비였다구?

룡문 그렇지 않구 너하구 말하다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까지 망신 당하겠다.
　(또 나가련다)

명옥 (붙잡으며) 너무 뽐내지 말구 좀 차근차근 얘기하렴아.

룡문 (시치미를 떼고 생각에 잠기다가 시를 읊듯이) 비날론이 쏟아지네
　비단필이 쏟아지네
　야 무지개보다 더 곱구나!

명옥 옳아 직물 2억 5천만 m의 고지가 보이는 게로구나.

룡문 그렇지 2천만 메터의 고급 아마 직이 쏟아지는 혜산 아마 방직 공장, 1만톤의 비날론 폭포…

명옥 청진 신의주, 가는 곳마다 방직 공장, 가는 곳마다 은실 폭포 비단 폭포로구나!

룡문 저 고지를 점령하고 7개년 계획을 다 하면 네게두 내게두 50m의 천, 야!

명옥 생각할수록 좋은 조국이구나!
　주택 20만 세대의 고지, 래년엔
　우리 고향 신천에도 아담한 새집들이
　줄지어 일어서겠구나.

룡문 어디 너희 고향 뿐이겠니 재령, 청단, 연안, 저 량강도 두메 산'골에도 우쭐우쭐 새집이 일어서지.

명옥 그리구 보니 빛나는 여섯 개 고지들이 훤히 보이는구나.

룡문 얘 저기 저 검은 고지를 좀 봐!

명옥 (감격하여 보며) 야 석탄 1,500만톤의 고지!

룡문 야 그 곁에 또 한고지 보이는구나
　명옥아 빨리 말해, 무슨 고지니?

명옥 그래 대답하마, 강철 120만톤의 고지!

룡문 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누나.

명옥 뜨락또르, 방직기, 재봉기도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룡문 저 여섯개 고지마다에 붉은 기 휘날리며 앞으로 앞으로!

명옥 저 고지들을 점령하는 날까지 우리 소년단원들이 할 일이 참 많아.

룡문 난 김 일성 원수님이 우리 학원에 오셔서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기사, 기수로 되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고 꼭 기사가 될테야.

명옥 난 이제 부턴 어느 과목이나 모두 5점으로 공부할테야.

룡문 난 이 달 중으로 전동기를 만들어 협동 조합 아저씨들께 보내겠어.

명옥 참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도와 줄게 500만톤 고지 점령을 함께 돕자꾸나.

룡문 우린 더 열심히 배워야 해, 이번 제 4차 당 대회에서 김 일성 원수님은 여러 모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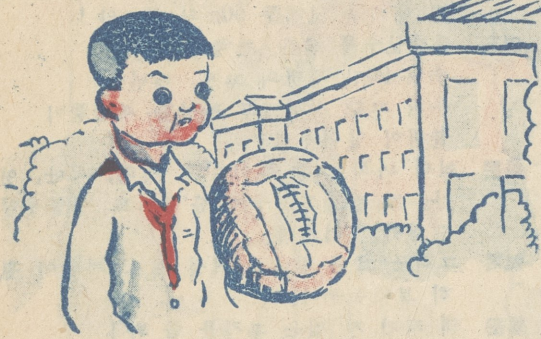
명옥 정말 그래 난 아직 공부에 많이 뒤떨어졌어 꼭 그렇게 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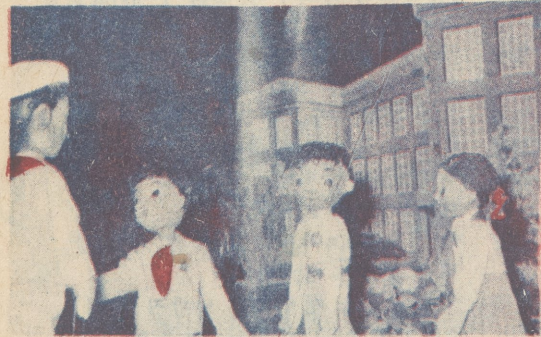
룡문 이 정신봐라, 분단 동무들은 지금 실습 공장에서 기다리겠구나 빨리 가자!

명옥 그래.

룡문 명옥 소년단원 동무들! 여섯개 고지에 붉은기 휘날리기 위해 모두가 우등 최우등 생으로 공부하며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도와 힘차게 나아 갑시다.
　△ 인사하고 퇴장.

인형극

태정이의 과업

이 인형극에는 《락후생》인 태창이와 명도 그리고 그를 도와 주려고 애쓰는 분단 열성자들인 영일, 희숙, 남수들이 나온다.

이 인형극은 동무를 믿고 그에게 과업을 주고 애써 도와 주면 어떠한 《락후생》도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모범 소년단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말썽꾸러기인 태정이와 명도는 이 날도 공원에서 뽈을 차다가 옆에서 화단을 열심히 가꾸고 있던 녀학생들의 머리를 뽈로 때려 소동을 일으켜 놓았다. 격분한 녀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울었다. 그러나 그들은 녀학생들의 말에 겁내지 않았다.

(2) 때마침 이것을 본 분단 열성자들인 영일이와 남수는 몹시 근심하였다.

《…너의 분단에서는 그 동무들을 락후하다고 비판만 주었지 그들의 좋은 점을 알아 볼려고 하지 않어》

단 벽보 주필 순희의 말에 영일이는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옳아, 우리 분단 사업의 약점이 바로 그거야! 남수야! 우리 태도부터 고치자!》

(3) 태정이와 명도는 온 종일 뽈을 찼다.

《야! 태정아! 래일 모란봉 경기장에 축구 구경 갈가?》

《결석했다고 또 혼나지 않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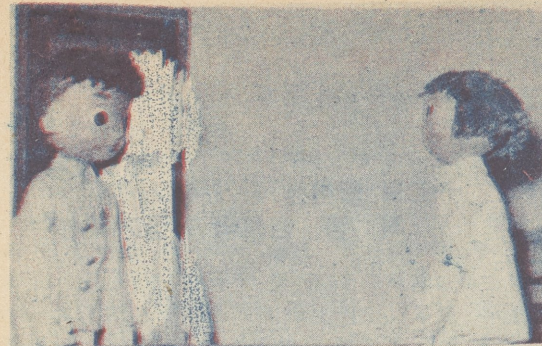
《좋은 수가 있어, 너희 고모네 집에 가서 석탄을 가져 와야 하겠다고 슬적 꾸며 대지 뭐》

태정이는 명도의 추김에 선생님에게 거짓 말하기로 결심하였다.

(4) 분단 위원회에서 열성자들의 사업 태도를 고치자고 의논한 영일이와 남수는 저녁에 태정이를 찾아 갔다.

영일이는 태정이에게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연구 발표하라는 첫 과업을 주었다. 태정이는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나보담 다른 아이께 맡겨, 이담에 또 못했다고 비판하지 말구.》

그러나 남수가 도와 주겠다고 열성을 내는 바람에 태정이는 어리둥절해서 더 말을 못했다.

(5) 그 날 밤, 분단의 첫 과업을 받은 태정이는 슬그머니 근심이 되였다.

그는 남수에게 맡겨 버리자고 그를 찾아 갔다. 그러나 남수는 없었다. 화가 울라 돌아 온 태정이는 그림 그려 달라고 졸라대는 동생 태희를 공연히 울리였다. 그 때였다. 명도가 래일 축구 구경 갈 입장권을 사 가지고 태정이를 찾아 왔다.

(6) 태정이는 기뻐서 명도를 끼고 돌아 갔다.

그 때 태희가 급히 달려 들어 왔다.

《오빠! 남수 오빠랑 분단 위원장이랑 리야까에다 석탄을 싣고 왔어.》

《뭐? 제길! 넌 왜 석탄이 떨어졌다구 말하라고 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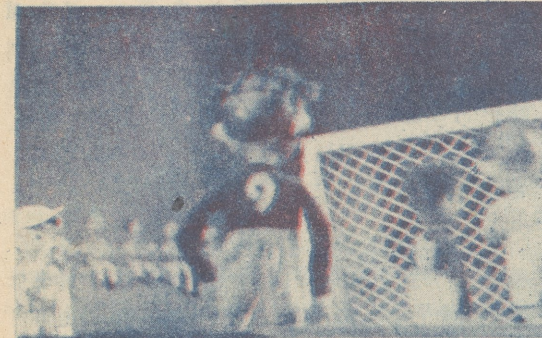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니?》

그 사이 벌써 영일이와 남수가 불쑥 들어 섰다.

《석탄이 떨어졌다기에 선생님이랑 토론해서 우리들이 모아 가지고 왔어.》

(7) 이런 일이 있은 이후 태정이는 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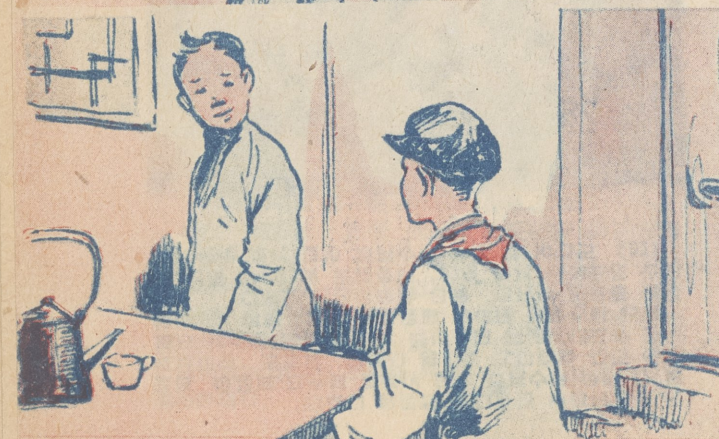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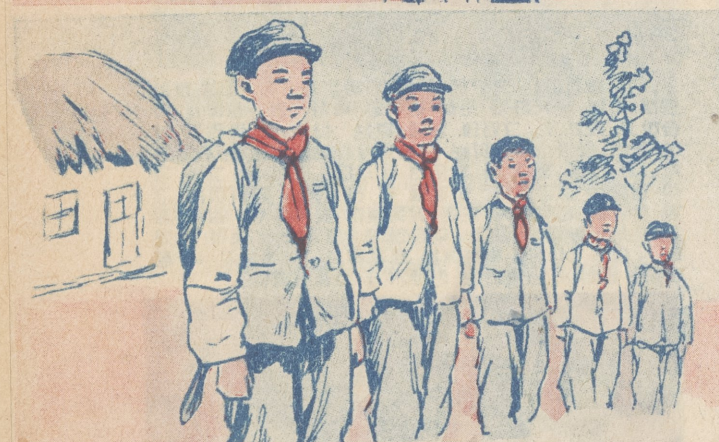
태정이가 그럴수록 분단 열성자들은 그와 더 가까이 지냈다. 태정이는 자기가 맡은 첫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영일이와 남수가 늘 찾아 와서 《수령을 따라 배우자》라는 책을 빌려 주고 도와 주는 것이 고마웠다.

(8) 태정이는 분단에서 맡은 과업을 꼭 해낼 결심으로 저녁 늦게까지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에서 학습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 없는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 왔다. 태정이는 그놈의 나비를 잡노라고 돌아 치다가 그만 전구 를 깨뜨려 버렸다. 겁이 난 그는 슬적 집으로 도망쳤다. 이것을 본 선생님과 영일이는 그가 우연히 전구를 깨뜨린 잘못보다 늦게까지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학습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뻤다. 다음 날 단 벽보에는 태정이가 늦게까지 《만경대》를 열심히 읽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였다.

(9) 며칠 후 분단에서는 일요일에 반별 축구 시합을 조직할 것을 태정이에게 맡기고 그를 심판원으로 뽑았다. 경기는 흥미 있게 진행되였다. 그런데 명도가 공연히 우쭐대면서 남수를 우정 까 넘기는 바람에 태정이는 화가 나서 명도와 다투기 시작했다. 이때 선생님이 달려 왔다.

《태정이, 〈만경대〉를 그저 읽기만 해선 안돼요. 행동에 옮겨야 지요.》

태정이는 명도의 잘못을 타이르지 못하고 싸움으로 해 볼려고 한 자기 잘 못을 깊이 깨달았다.

(10) 드디여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연구 발표하는 날이 왔다. 태정이는 분단에서 맡은 과업을 훌륭히 해냈다. 분단 열성자들은 기뻤다.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태정이가 좋은 일을 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날 태정이는 명도의 참된 동무가 되여 그를 도와 주겠다고 결심을 다졌다. 명도도 태정이처럼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고 본받아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다졌다.

— 환등 자료 —

—항일 빨찌산 참가자
최 광 선생의 회상기에서—

(1) 때는 1933년.

항일 빨찌산 투사 최 광 선생님이 훈춘현 중동거우에서 아동단 분대장 공작을 하던 때의 이야기다.

그 때 중동거우에는 40 명의 아동단원들이 있었다. 이들을 위하여 당에서는 4 년제의 혁학(혁명 학교)을 세워 주었다. 교과서 , 공책, 연필 등 당에서는 학용품까지 마련해 주었다.

아동단원들의 가슴마다엔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참된 전사가 되리라는 붉은 마음이 고동쳤다.

그리하여 언제나 책을 끼고 다니면서 공부에 열심했고 부모들의 일손을 잘 도와 드렸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김 봉률 소년이 바로 그런 중동거우의 아동단원이였다.

(2) 이른 아침 아동단원들의 조기 체조 시간이다. 언제나 구김'살 없이 깨끗한 봉률이의 붉은 넥타이를 보라!

배낭, 곤봉, 어디를 살펴도 흠 잡을 데가 없다. 봉률이는 이렇듯 사랑하고 아끼는 붉은 넥타이의 귀중한 뜻을 따라 조직에서 분공 받은 일을 누구보다 앞장 서 훌륭히 수행하군 했다.

(3) 봉률이는 아동단 규률을 위반하여 출단된 마 동무라는 동무를 교양할 임무를 자진하여 맡았다. 그는 날마다 마 동무네 집으로 찾아 갔다.

마 동무는 《넌 왜 시끄럽게 이러니?》하고 봉률이에게 덤벼들기까지 했다.

봉률이는 안타까왔다. 그러나 동무를 참되게 도와 주려는 아동단원의 뜨거운 마음을 굽힐 수는 없었다.

(4) 봉률이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계속 마 동무를 찾아 갔다.

봉률이는 그의 동무가 되여 놀기도 했고 밤 늦게까지 그와 함께 숙제도 풀었다.

《지금부터 공부 잘하고 규률을 잘 지켜야 김 일성 장군 유격대의 참된 전사가 될 수 있어!》 봉률이는 이렇게 늘 마 동무에게 타일렀다. 그리고 경찰놈들에게 붙들리여 모진 고문 끝에 죽어 가면서도 유격대의 비밀을 지켜 낸 슬기롭고 용감한 아동단원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군하였다.

(5) 《봉률아 이제야 알만해.》 마 동무는 봉률이가 진정으로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봉률이의 꾸준한 노력은 마침내 마 동무의 가슴에 불을 붙여 줬다.

마 동무는 봉률이의 꾸준한 도움을 받아 다시 아동단원이 되였다. 붉은 넥타이를 다시 매던 날 마동무는 동무들 앞에서 아동단에 굳게 뭉쳐 혁명 사업을 힘껏 도울 굳은 결의를 다졌다.

(6) 아동단원들이 할 일은 많고 많았다. 중동거우 유격 근거지는 방금 조직된 곳이였다.

혁명 조직에서는 적 《토벌대》 놈들이 쳐 들어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식량 절약을 위한 투쟁 과업을 내 세웠다. 아동단원들은 식량 절약 선전에 나섰다. 봉률이도 날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선전했다. 그는 이 일에도 누구 보다 앞장 섰다.

(7)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였다.

이 날도 봉률이는 식량 절약 선전을 하고 늦게야 집으로 돌아 왔다.

식구들은 모두 곤히 잠들고 있었다.

아래'목에 차려 놓은 밥상에 마주 앉은 봉률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난 데 없는 떡 한 사발이 놓여 있지 않는가?

《어머니 이 떡이 어디서 났어요? 예!》 그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어머니는 봉률이가 없는 틈을 타서 떡을 해놓고 기다렸던 것이다.

(8) 떡 사발을 힘 없이 밀어 놓은 봉률이는 책상 우에 얼굴을 묻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면 이렇게까지 하였으랴! 그러나 나는 아동단원으로서 이 좋은 어머니를 옳게 일깨워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뉘우침이 봉률이의 어린 가슴을 파고 들었다. 남 한테 식량을 절약하라고 선전한 자기가 한 없이 부끄러웠다.

봉률이의 눈 앞에는 비웃고 손 가락질 하는 동리 사람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9) 아동단원인 봉률이가 이 일을 숨기고 어떻게 참을 수 있었으랴.

봉률이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어 놓은 붉은 넥타이를 바라 보았다.

《그렇다. 나는 혁명과 조직의 위임에 충실하지 못했고 아동단원의 영예를 더럽히였다. 나는 붉은 넥타이를 떳떳이 매고 다닐 자격이 없다…》

봉률이는 마침내 붉은 넥타이를 흰 종이에 차곡차곡 포개여 쌌다. 입단할 때 공청에서 나오신 아저씨가 언제나 혁명과 조직의 위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매여 주던 붉은 넥타이!

(10) 다음 날 아침 조기회 때.

대렬 끝에 선 봉률이

웬일인가? 붉은 넥타이도 안 매고 고개를 푹 숙인채 서 있는 봉률이, 이런 봉률이를 언제 한번 본 일이 있었던가? 봉률이는 대렬 앞으로 불리워 나왔다. 《분대장 동무! 저는 아동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봉률이는 붉은 넥타이를 내밀고 지난 밤에 있은 일을 이야기 했다.

(11) 봉률이를 둘러 싸고 숨을 죽여 가며 듣고 있던 아동단원들은 모두가 감동되였다. 《봉률아! 너는 참된 아동단원이다. 너야말로 붉은 넥타이를 떳떳이 매고 다닐 수 있는 훌륭한 아동단원이다.》

어느 사이에 오셨던지 공청 구위 아저씨가 와락 달려 들어 어린 봉률이를 힘껏 그러 안았다.

봉률이의 앞가슴에는 붉은 넥타이가 자랑차게 휘날리였다. 봉률이의 맑고 깨끗한 혁명적 량심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 맥맥히 흐르고 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모두 가슴에 드리운 붉은 넥타이를 만지며 굳게 마음 다지자! 아동단원 김 봉률이처럼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이자! 봉률이처럼 학습에 꾸준하자!

그 처럼 동무를 사랑하고 조직을 사랑하며 조직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훌륭히 해 내는 참된 소년단원이 되자!

움직이는 종이 공작

동무들은 이 놀음 감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만들고 싶은 동무들은 우선 마분지, 칼 가위, 풀, 실, 바늘을 준비하십시요.

다음에는 점선 (1) 을 오려 내고 마분지에다 단단히 붙이시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으로 한참 꽉 눌러 놓으시요.

풀칠한 종이가 마른 다음에는 그림(4)에서 팔과 손, 그리고 머리를 오려 낸 다음 점선을 따라 접고 약간 풀칠하여 팔과 머리, 손이 대에 붙게하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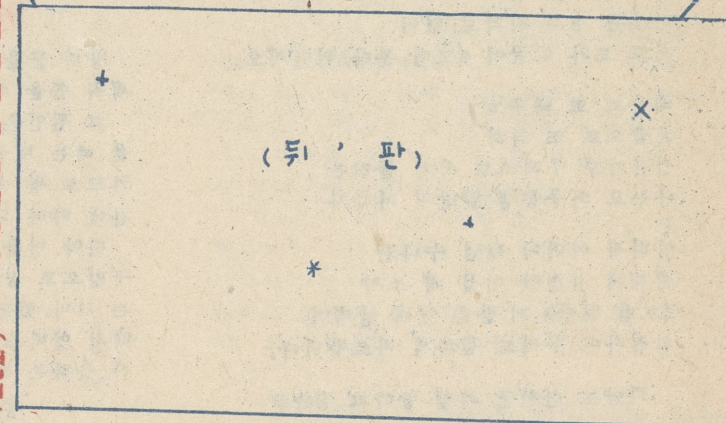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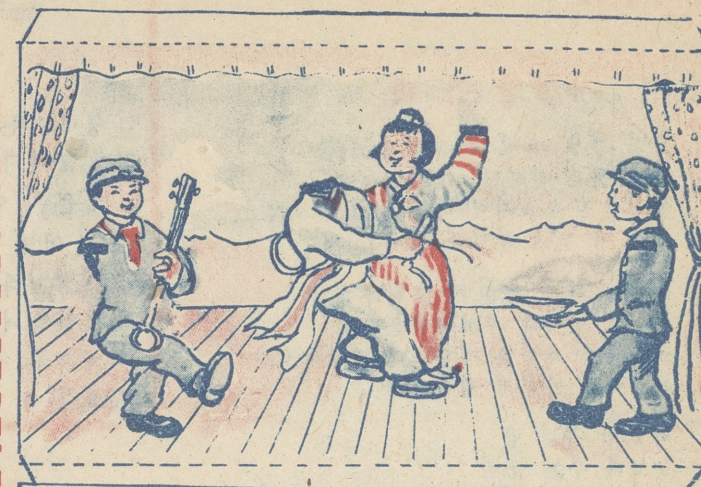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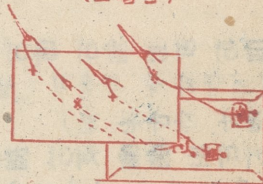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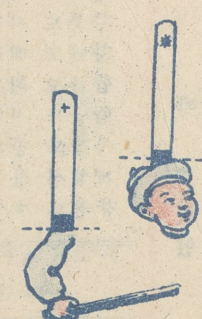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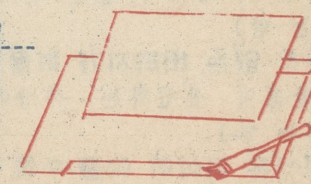
다음에는 그림 (2)에서 굵은 선을 따라 가위질을 하여 오려 낸 후 그림 (3)처럼 굵고 넓은 선에 칼질을 하시요.

다음에는 그림 (4)에서 오려 낸 팔과 머리, 손을 그림 (5)처럼 칼질한 구멍에 하나 하나 꽂은 다음 뒤판에 표식한 구멍에 바느질을 하고 졸라 매시요.

이제는 어려운 과업이 끝났습니다. 남은 일온 그림 (6)에서처럼 량 끝에 약간식 풀칠을 하고 종이를 부치면 됩니다.

그려면 그림 (1)처럼 량 끝을 잡고 바른 쪽 왼 쪽으로 흔들어 보시요. 그러면 사내 아이들과 처녀애들은 훌륭하게 춤을 추며 행금, 제금을 울릴 것입니다.

(그림 2)

(동)(시)

자랑찬 한 해

아침 공부 다 하고 책상 앞에서
붉고 붉은 넥타이 매고 있는데
원수님은 웃으시며 나를 보고 물으셔요.
너는 이 해에 무엇을 했니?

우등도 하지 못한 지난 해라면
나는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자랑스레 대답해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비'바람 부는 날
눈보라 우는 날도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서로 도와 이끌어 《모범 분단》되였지요.

배우고 또 배우고
실습으로 또 익혀
선반기도 푸레스도 척척 돌리는
나는요 최우등생 앞날의 과학자.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새해에 점령할 여섯 개 고지
《모범 분단》 기'발을 앞에 날리며
고지마다 우리도 힘차게 따르렵니다.

황남도 신천군 새길 중학교 3학년
3학년 림 정선

①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조급하게 서둘면 일이 반드시 실패에 돌아 간다는 말)

②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무슨 일을 시작하자면 우선 필요한 차비를 해 놓아야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다는 말)

③ 소리 없는 버러지가 벽을 뚫는다.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낸다는 말)

④ 곡식은 이삭이 여물 수록 고개를 숙인다.
(훌륭한 사람일 수록 겸손하다는 말)

영남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난계를 보았습니다.

기온은 어제 아침과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어제 아침보다 더 추웠습니다. 다르다면 어제보다 바람이 더 센 것 뿐이였습니다.

기온은 같은데 오늘 아침은 왜 더 추울가요?

9호 현상 문제 해답

병의 물을 엇비스듬히 기울여서 쏟으면 곧추 세워 쏟을 때보다 빨리 쏟아집니다.

그 원인은 병을 엇비스듬히 기울려서 물을 쏟을 때는 병구멍을 통해 공기가 계속 병에 들어가므로 병 속에는 공기가 물을 누르는 힘이 시간에 따라 더 크게 생기게 됩니다.

만약 병을 곧추 세워 놓고 물을 쏟을 때는 병구멍으로 공기가 들어 갈 수 없으므로 병 속에는 이미 있던 공기 밖에 없기 때문에 압력이 약해서 엇비스듬히 기울렸을 때보다 빨리 쏟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북 선천군 선천 초등학원
김 태욱

9 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북도 선천군 초등학원	김 태욱
평북도 동림군 신곡 중학교	한 정범
평남도 북창군 연유 중학교	박 봉옥
황북도 사리원시 구천 중학교	안 달경
황남도 태탄군 태탄 중학교	허 동환
함남도 허천군 금창 중학교	한 경재
함남도 신창군 속후 중학교	장 성주
자강도 강계시 고영 중학교 전 원실,	홍 순옥
개성시 선죽 중학교	송 세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 중학교	마 용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12 호 (총 146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601 값 25 전 150,000부 발행

겨울을 보람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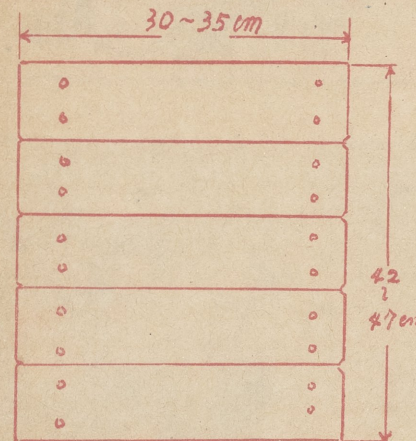
썰매 만드는 법

즐거운 겨울이 왔다.

썰매 스케트 타기로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겨울을 보람있게 보내자!

다음에 썰매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1) 우'판 만들기

우'판은 그림과 같은 크기로 한다. (자기에게 알맞게)

(2) 굽 만들기

썰매 굽은 그림과 같은 나무 2 개가 있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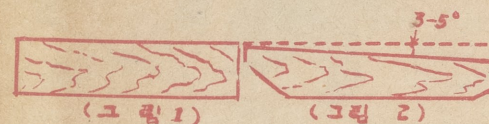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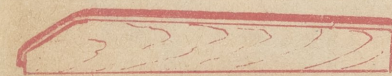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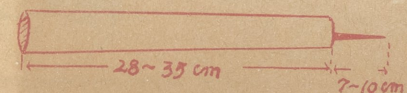
그림 2와 같이 굽의 앞뒤 부분을 깎은 다음에 우'판을 대는 곳이 3~5 도 정도 경사가 되게 깎는다.

(3) 철사 달기

철사는 직경이 0.5~10 mm 정도면 된다.

불에 달궈 가지고 굽에 댈 수 있게 앞뒤를 꾸부린다. 그것을 굽에 단다.

(4) 송곳

썰매 송곳은 철사를 20~25 mm 끊어 가지고 나무 자루에 박으면 된다.

썰매 타기 놀음

(1) 유희 조직

(ㄱ)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ㄴ) 썰매 2 대와 기'발대 4 개, 수건 2 개, 스캐트 4 개를 준비한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ㄱ)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ㄴ) 각 편의 유희자들은 출발선을 향하여 종대로 정렬시킨다.

(3) 유희 방법

(ㄱ)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각 판의 선두에 선 한 유희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우고 썰매에 타고 송곳(썰매 밀개)으로 민다. 스캐트를 신은 한 유희자는 말 없이 뒤에서 썰매 탄 유희자의 머리를 가볍게 잡고 첫 기'발을 꽂은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여 간다.

(ㄴ) 첫 기'발이 꽂힌 곳에 도착한 각 편 유희자들은 다시 다음에 꽂은 기'발 있는 곳을 목표로하여 간다. 이때 뒤에서 인도하여 오던 유희자는 눈을 싸맨 사람의 앞으로 나와 손'바닥 치기로 인도하여 귀환점을 돌아 출발선까지 온다.

(ㄷ) 출발선에 도착한 유희자들은 다음 유희자에게 수건과 썰매를 인계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빨리 끝난 편이 승리한다.

(4) 주의 할 점

(ㄱ) 수건으로 눈을 가리울 때 앞이 보이지 않도록 잘 가리워야 한다.

(ㄴ) 썰매 뒤에서 방향을 인도하는 유희자는 썰매를 탄 유희자의 귀를 잡아서는 안 된다.

※ 뒤에서 방향을 인도하는 유희자가 스캐트를 신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만화 영민의 지혜